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운곡지구 종합목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운곡지구 종합목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먼저 비육소원종장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모든 공정들이 현대적으로 꾸려진 원종장을 돌아보시면서 소목장들에서 요구하는 우량품종의 송아지생산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여러 종류의 배사소들을 주의깊게 보아주시면서 어떤 방법으로 우량품종의 송아지들을 받아내는가를 자세히 알아보시였다.

목장에서 소고기와 우유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자면 생활력이 강하고 생산성이 높은 우량품종의 소들을 더 많이 육종해내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이어 돼지원종장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아담하고 특색있게 건설된 돼지원종장의 외부와 내부를 돌아보시면서 사양관리실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새 품종의 우량돼지를 육종해내기 위한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하였으며 지금 어느 계선에 이르렀는가를 일일이 물어 주시였다.



목장에서 사료를 적게 먹으면서도 빨리 자라며 고기의 질도 높은 우수한 돼지 품종을 육종해내기 위해 지혜와 열정을 바치고있는데 대하여 기쁨을 표시하시였다.

축산에서 기본은 종자라고 하시면서

우량품종의 돼지들이 가지고있는 고유한 특성을 유지개량하기 위한 사업을 더욱 짜고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염소사를 돌아보시였다.

채래중에 비하여 번식이 빠르고 증체

률이 높으며 고기의 질이 좋은 새 품종의 염소와 양들을 깊은 관심속에 보아주시였다.

목장에서 기르고있는 염소와 양들은 경제효과성이 높은 품종들이라고 하시면서 우량품종의 염소와 양들을 우리 나

라 특성에 맞게 길러내며 널리 퍼치기 위한 사업을 줄기차게 밀고나가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목장에서 제작한 먹이생산용분쇄 및 혼합기 등을 보아주시면서 사료가공으로부터 먹이공급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정들을 더욱 현대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목장의 우량종축산연구소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운곡지구 종합목장은 우량품종의 집집승들을 많이 받아 목장들에 보내 줄뿐아니라 맛있고 영양가 높은 고기와 우유를 생산하는 중요한 축산기지의 하나이라고 하시면서 원종장의 관리운영에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인민들에게 고기와 알, 우유를 비롯한 영양가 높은 부식물을 더 많이 먹이기 위하여 생전에 그토록 로고와 심혈을 다하시던 아버지장군님의 소원을 기어이 풀어드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풀먹는 집집승을 대대적으로 기를데 대한 조선로동당의 구호를 높이 받들고 모든 단위들에서 축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조선인민군 제552군부대관하 구분대를 시찰하시고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1017군부대의 비행훈련을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조선인민군 제552군부대관하 구분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구분대에 도착하시자 군부대장이 영접보고를 드리였다.

순간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과 《김정은 결사옹위!》의 구호의 함성이 터져올라 천지를 진감하며 창공높이 메아리쳐갔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꿈같은 행복에 겨워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군인들에게 따뜻한 담례를 보내시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구분대군인들이 한없이 귀중한 사회주의조국을 철옹성같이 지켜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쌍안경과 자동보총을 기념으로 주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부대의 입무수행정형을 료해하신 다음 근무지휘실과 전문연구실 등을 돌아보시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이어 전투기술기재관리정형을 료해하시였다.

전시해놓은 전투기술기재들을 보시고 군인들속에서 현대전에 대처할수 있는 전투기술기재들을 창안제작하고 그것을 정상관리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는데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구분대의 식당, 부식물창고를 돌아보시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이날 구분대관하 녀성중대를 돌아보시였다.

원수님께서서는 교양실, 병실, 세목장 등 중대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병사들의 생활에 대해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병실에 들어서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침대바닥도 짚어보시며 삼복철인데 덥지는 않은가고 다정하게 물어주시였다.

침대뒤에 매달아놓은 썩이 잡냄새를 없애고 습기방지도 좋다는 보고를 긍정해주시였으며 세목장의 수질이 좋은가고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휴식장에서 진행하는 중대군인들의 예술소조공연을 보아주시였다.

중대군인들은 합창 《초소의 가치소리》, 시와 노래 《내가 지켜선 조국》, 2중창 《감사의 노래》, 합창이

야기 《단숨에》, 시랑송 《조국이 너를 사랑하게 하라》, 기악과 노래 《밀림속의 승전가》, 설화와 노래 《은 나라에 소문났네》, 합창시와 합창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등 다채로운 종목들을 펼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군인들의 사상정신상태가 아주 좋다고, 그들의 머리속에 티끌만 한 잡사상도 들어갈 틈이 없다고, 정말 만족하다고 하시며 그래서 선군문화가 좋은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공원을 방불케 하는 병영구내를 거니시며 구분대를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잘 꾸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지휘관들과 병사들이 합심하여 강철같은 군기를 확립하고 최정예혁명강군의 전투적기상과 면모를 힘있게 과시하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오중층 7련대정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1017군부대의 비행훈련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영접보고를 받으신 다음 지휘소에 오

르시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비행훈련진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훈련을 지도하시였다.

구령이 내리자 비행사들은 조종간을 육박의 총창인양 억세게 틀어잡고 조국의 푸른 하늘로 날아올랐다.

리륙하는 비행기들의 폭음소리가 천지를 뒤흔들고 강렬한 폭풍이 세차게 몰아쳤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자기들의 훈련모습을 보여드리게 된 크나큰 영광과 행복을 심장깊이 간직한 비행사들은 평시에 련마해온 자기들의 높은 비행술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급상승하며 아득히 사라졌다가 《적》진으로 버락같이 급강하하는 비행대들은 명령이 내리면 백두산번개처럼 적진을 즉량치고 정일봉우리처럼 원수의 본거지를 송두리채 뒤흔들어놓고야말 용감한 매들의 전투적기상을 보여주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지휘소의 로대에서 비행사들의 훈련을 장시간에 걸쳐 보아주시였다.

원수님께서서는 어렵고 복잡한 정황속에서 비행사들이 자기앞에 맡겨진 전투임무를 원만히 수행할수 있게 준비되어있는가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훈련이 잘되었

다고 하시면서 한몸이 그대로 육량이 되어 사회주의조국의 신성한 령공을 금성철벽으로 지켜가고있는 미더운 비행사들이 있기에 조국의 하늘은 언제나 맑고 푸를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비행훈련을 강화하여 비행사들을 현대전에 능숙히 대처할수 있는 하늘의 결사대, 유능한 전투비행사로 더욱 억세게 준비시켜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훈련에 참가하였던 비행사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고무격려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이어 활주로에 나오시여 비행기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훈련지도를 받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아안은 비행사들과 군인들은 또다시 전진시찰의 길에 오르시는 원수님을 우러러 《만세!》의 환호를 목매여 부르고 또 불렀다.

원수님께서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군인들에게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따듯이 손저어 담례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군부대군인들이 싸움준비완성에 더 큰 비약의 박차를 가함으로써 사회주의조국의 하늘을 철옹성같이 지켜가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8.15와 애국의 계주봉

민족의 자주와 존엄, 운명은 총대의 힘에 달려있다. 심원한 진리는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영원불변한 철리이다.

지난 세기 우리 겨레가 가장 포악한 외세의 기반에서 구원된 8.15해방도 그 누구의 도움이나 적수공권력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피어린 총대의 승리이다.

당시 조선을 강탈한 일제는 광신적인 왕도정신에 현대적인 무기로 발톱까지 무장하고 한창 패창의 일로를 걷고있는 신총군사대국이었다.

실지로 김일성주석께서 항일성전을 선포하셨을 때 반일인민유격대와 일제와의 역량상 대비는 반일인민유격대는 불과 100명에 일제는 관동군 100만, 비행기와 탱크를 비롯한 신식장비를 가진 정예부대였다.

그러나 나라의 독립은 남이 가져다줄 수 없으며 평화적방법으로는 절대로 일제를 타복하고 나라의 해방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셨기에 수령님께서 결연히 무장으로 강적과 정면대결하셨던 것이다.

총대를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 데 최대의 애국이 있고 총대를 홀시하면 나라도 잃고만다는 것이 만경대가문의 가정철학이었다.

강도들이 집에 들어와 칼부림을 하는데 목숨을 살려달라고 아우성친다고 목숨을 살려줄리는 없다. 제 목숨을 지키려면 제 힘으로 강도놈들과 싸워야 한다. 칼을 들고는 칼을 들고 싸워야 이길 수 있다는 아버님의 가르침을 따라 수령님께서 아버님께서 물려주신 두자루의 권총을 밀친으로 항일대전의 길에 나서시었다.

그 총대는 한 가문의 영달이나 립신양명을 넘두에 둔 부자간에 주고받는 단순한 유산이 아니었고 애국위업실현의 명맥을 이어주는 계주봉이었다. 15성상 사선천리, 혈전천리로 이어진 길, 민족의 생사존망이 달려있어 피할 수도 외면할 수도 없을 수 없는 일생일대의 길을 꿰차고 걸어나가게 한 만능

의 보검이었다.

천변만화하는 난만(남만)원정과 푸송(무송)원정, 대부대선회작전과 소부대활동을 비롯한 작전들과 지엔쌍봉(간삼봉)전투, 다마루거우(대마루구)전투, 홍치하(홍기하)전투 등 대소전투들 그리고 유인매복전법과 기습소탕전, 동성서격전법, 일행전리전술, 망원전술을 비롯한 명확무쌍한 유격전법들은 일제의 간담을 서늘케 하고 치명적인 타격을 안겼다.

《1930년대 초 전라남도 라주에서 보낸 나의 초등학교시절 김일성장군은 동에 번쩍 서에 번쩍 불하는 맹장이요 백두산, 금강산, 지리산을 주름잡아 달리면서 일본놈들을 치는 장수라는 전설같은 이야기가 나돌았다. 그분의 이야기만 나오면 가슴은 한없이 부풀고 통학길은 언제나 신명나고 즐거웠다. 그분은 그대로 신화이자 전설적영웅이었다. 일본복군사관학교시절이나 해방후 부산에 돌아와서도 동료들과 김일성장군에 대한 비밀 이야기를 자주 주고받곤 했는데 만일 그때 우리가 평양에 갔더라면 우리 인성은 180° 달라졌을 것이다.》

한때 남조선군부의 요직에서 공군참모총장으로 활동한바 있는 사람의 회고담이다.

바로 그 나날 불굴의 신념과 의지로 일어난 라오허이산(로후산)의 전설과 티엔차오령(천교령)의 기적이 생겨나고 고난의 행군정신이 창조되었고 민족의 진취적영웅! 청년영웅 김일성장군! 그이야말로 우리의 위대한 투사



평양시환영군중대회에서 연설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

주제34(1945)년 10월

다한것을 온 세상에 파시하고 거레를 조국해방전쟁으로 불리우려 하신 김일성주석의 존함으로 빛나고 있다고 전했다.

혁명을 하거나 한평생 군인이오 살수밖에 없다고 했었던 수령님께서는 한생 손에서 총을 놓지 않으시고 선군의 한길로 공화국을 건설해 주신 우리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이자

요, 진실한 지도자이다.》 조선인민이 전통적으로 경축하는 8.15명절을 축하하면서 로씨야신문 《프라우다》는 세대와 세대를 이어오던 나라의 자주독립에 대한 조선인민의 세기적년월은 1945년 8월 15일에 이룩되었다. 력사의 이 날은 조선인민의 위대한 아들인 김일성주석의 존함으로 빛나고 있다고 전했다.

혁명을 하거나 한평생 군인이오 살수밖에 없다고 했었던 수령님께서는 한생 손에서 총을 놓지 않으시고 선군의 한길로 공화국을 건설해 주신 우리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이자

주위업실현은 필연코 치열한 힘의 대결을 동반하는 력사적과제였다. 총대를 떠난 자주성이란 있을 수 없고 총대에 녹이 쓸면 인민의 노예가 되고만다는 것이 수령님의 지론이고 민족에게 하신 교훈한 훈계이다.

만경대일가의 물질적유산이나 가보이기 전에 민족의 더없이 소중한 재보로 된 총대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의해 이어졌다.

백두산에서 총대가문, 총대가 품의 혈통을 이어 받으시고 탄생하셨고 총과 함께 성장하신 그이께서 물려받으신 애국가가의 바통은 총대이다.

할아버지는 자기 대에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지 못하면 아들에

에 하고 아들대에도 못하면 손자대에 가서라도 거어이 일제를 쳐부시고 조국의 해방을 이룩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었다. 할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실 때에 나에게 지인의 뜻이 담긴 권총 두자루를 유산으로 넘겨주시었다. 나는 그 권총 두자루를 밀친으로 삼아 첫 무장대오를 조직하고 반일대전을 선포했으며 조국의 해방을 이룩하였다. 이 권총을 혁명의 계주봉으로 알고 받는 것이 좋겠다.

조국해방전쟁시기 최고사령부작전실에서 10대의 어리시 장군님께 총을 물려주시며 수령님께서 하신 당부이다.

혁명가는 일생동안 손에서 총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절대로 총을 놓아서는 안된다는 수령님의 간곡한 당부 부는 장군님의 좌우명으로 되었다.

총과 숭결을 함께 하신 그이께서는 선군의 50여성상 그 맹세에 충실하셨다. 지난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나날 최첨방, 최전선으로부터 후방에 이르기까지 조국방선의 전역을 총황으로 다지도록 하시고 근대와 인민을 이끄시어 민족의 운명과 나라의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신 장군님이시이다.

지난 7월 김정은원수님께서 장군님의 애국헌신과 불멸의 업적을 더듬어주시며 김일성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는데 대해 가르치셨다. 이를테면 장군님의 숭고한 조국관, 인민관, 후대관을 수감으로 삼고 애국충정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다. 애국에 온넋을 다 바친 만경대일가의 계주봉, 선군의 바통을 물려받으신 김정은원수님 이시이다.

언제인가 수령님께서 대대로 총대를 계주봉으로 넘겨줄수 있는 가문을 소중히 여기시며 한 가문이 3대에 걸쳐 총을 잡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성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하셨는데 대대로 총대의 빛나는 계승은 민족의 더없는 행운이고 복이 아닐수 없다.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만사에 밝은 자질과 비범한 령도실력, 뛰어난 덕망을 지닌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어 절세위인들의 총대의 력사, 선군애국위업은 한결같은 양보도 없이, 한치의 트림도 없이 빛나게 계승되고있는 것이다.

그이의 정치경륜과 활동에 대해 《KBS》, 《진보네트워크》를 비롯한 남조선언론들은 《김정은령도자가 김정일위원장의 선군정치를 계승》, 《김정은령도자는 앞으로 선대수령들의 선군정치를 변함없이 계승발전시키면서 무적의 군력에 의거하여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보장하고 남북통일을 실현하며 강성대국이라는 사회발전을 이룩할 전망이다.》라고 전했다.

미국 CNN방송, AP통신, 일본 《산케이신문》, 지지통신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 보도물을 보면 《김정은시대의 막이 올랐다.》, 《김정은최고사령관의 군부대시찰은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국방위원장의 군부대시찰을 방불케 한다.》고 보도했다.

애국의 계주봉에 빛나는 숭고한 조국관, 인민관, 후대관을 지니고 조국수호와 강성국가건설의 장정을 걷고걸으시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적포모에 감개무량해하시며 장군님께서 생전에 나는 김정은동지가 있기에 마음은 든든하다고 하셨습니다.

세대와 세대를 이어온 만경대가문의 애국의 계주봉과 더불어 민족의 운명과 양양한 전도가 확고히 담보되고있는 것이다.

본사기자 리 설



조국해방을 안아오신 아버지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본다.

—조선혁명박물관에서—

김일성주석의 회고록을 펼치면 조국해방의 대사가면이 드러난다. 그 때 수령님께서 쓰신 내용은 그 당시의 현실과 민족의 운명, 그리고 수령님께서 쓰신 내용의 깊이를 헤아려야 한다. 그 당시 수령님께서 쓰신 내용의 깊이를 헤아려야 한다. 그 당시 수령님께서 쓰신 내용의 깊이를 헤아려야 한다.

그러나 수령님께서 10년 동안 약 40년간의 수습기간이 필요할것이라고 하였으며 얼마동안은 전후 조선문제처리를 논하든 해방된 아시아의 약소국들은 강대국의 후원하에 민주적제도에 속에서 교육되어야 한다고 력설하였다.

그러나 수령님께서 10년 동안 약 40년간의 수습기간이 필요할것이라고 하였으며 얼마동안은 전후 조선문제처리를 논하든 해방된 아시아의 약소국들은 강대국의 후원하에 민주적제도에 속에서 교육되어야 한다고 력설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에서 민족의 운명과 자주

주독립국가를 건설할수 있는 길을 실현할수 있을것 같은가고 문의하였다. 늦어도 2~3년간이면 해방이라는 수령님의 말씀에 유다노브는 두손을 마주 비비면서 기뻐하면서 전혀 뜻밖이라는듯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였다. 그럴만도 하였다. 당시 미국대통령 루즈벨트는 어느 한 각료회담에서 말하기를 조선과 인도네시아는 강대국들의 신락통치하에 놓여야 한다고 하면서 조선사람에게는 완전한 독립

을 얻기 전에 약 40년간의 수습기간이 필요할것이라고 하였으며 얼마동안은 전후 조선문제처리를 논하든 해방된 아시아의 약소국들은 강대국의 후원하에 민주적제도에 속에서 교육되어야 한다고 력설하였다.

그러나 수령님께서 10년 동안 약 40년간의 수습기간이 필요할것이라고 하였으며 얼마동안은 전후 조선문제처리를 논하든 해방된 아시아의 약소국들은 강대국의 후원하에 민주적제도에 속에서 교육되어야 한다고 력설하였다.

극적으로 지지해주고 조선문제가 조선인민의 리익과 의사에 맞게 해결되도록 힘써 주기를 바란다. 주체적립장과 자주주의의 지가 확인한 수령님의 말씀을 들으면 유다노브는 말없이 자기 만났던 동유럽나라의 한 사람이 자기 나라는 본래부터 경제적으로 낙후한데다 경제개혁이 막심해서 난관이 한두가지가 아니기때문에 조련이 큰집이 될것치고 도와 주어야겠다고 했다고 하면서 수령님의 립장

과 대조적이라고, 동방과 서방의 헤드는 나라와 헤지는 나라의 차이라고 자신의 심금을 내비쳤다.

그때로부터 3년 후 아버지수령님께서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의사를 반영하여 진행된 인민의 나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었다. 이것은 사대로 얼룩진 땅의 력사애 종지부를 찍은 력사적사건, 새로운 자주독립국가의 탄생이었다.

본사기자

해방의 환희를 통일의 환호성으로

주제34(1945)년 8월 15일 조국해방은 온 민족의 환호성이 삼천리강토를 진감하게 한 력사적사건이었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의 영웅이신 김일성주석께서 항일대전을 빛나는 승리로 이끄시어 우리 민족이 일일천추로 갈망한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었다. 민족재생의 그날은 조선민족이 외세의 식민지기반에서 벗어나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을 되찾은 운명전환의 날이었다.

허나 해방의 기쁨으로 부풀어 오른 우리 겨레의 가슴을 아프게 허빈짓은 미군의 남조선강점과 그로 인해 초래된 민족분열의 뼈아픈 비극이었다. 그로부터 오늘날까지 70년을 헤아리는 지나간 세월 우리 겨레는 분렬의 아픔속에서 살고있다. 북과 남으로 흩어진 수많은 가족, 친척들이 서로의 생사여부조차 모르며 한민족이 서로 갈라져 불신하고 대결하는 민족분렬의 실태와 고통은 이루 다 헤아릴수 없다.

지난 세기 분렬되었던 나라들은 이미 통일을 이룩하였지만 반

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 단일민족임을 자랑하는 우리 겨레가 아직까지 통일을 실현하지 못하고있는것은 이 행성의 최대비극이 아닐수 없다. 오랜 력사를 가진 우리 겨레의 민족적통통성은 북과 남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의 차이보다 더 크며 통일조국을 일떠세우려는 민족의 열망은 8월의 폭양보다 더 뜨겁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조국통일은 한시도 미룰수 없는 민족지성의 과업이다.

그러나 지금 통일의 길에는 내외반통일세력의 악랄한 방해책동으로 하여 커다란 난관이 가로놓여있다.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은 조선분렬의 원흉이며 우리 민족의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인 미국에 민족의 리익을 송두리채 숨겨치며 동족대결책동에 광분하고있다. 그들은 미국의 침략책동에 추종하면서 무분별한 전쟁연습과 비열한 반공화국모략행위를 일삼아왔으며 공화국의 통일을 일깨우지 못하며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가져다준 일본과의 군사적결력을 더욱 강화하고있다.

이런 침략의 무리, 민족반역의 무리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북남관계의 개선도, 조국통일도 이룩할수 없다.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고수리행해 나가는데 8.15해방의 그날에 우리는 강토를 뒤덮었던 환희를 통일의 환희로 이어가는 길이 있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민족자주의 선언, 민족대단결의 선언이며 조국통일의 대강이다.

온 겨레는 안팎의 반민족, 반통일호전세력의 침략과 전쟁책동이 악랄해지면 질수록 우리 동지끼리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어야 한다.

조국통일운동의 주체는 우리 민족이며 외세의 의존하여서는 어느때에 가서도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수 없다. 어떤 경우에도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찢자리에 놓고 나라의 통일을 꾀하려는 문제는 민족자주의 립장에 우리 민족끼리 해결해나가야 한다. 우리 겨레가 사는 모든 곳에서 자주통일의 불길이 거세하게 타고르도록 하며 외세에 아부굴종하며 동족대결을 추구하는 남조선보수매당의 친미사대

와 매국배주행위를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항시적으로 전쟁의 위험속에서 살아온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평화수호투쟁은 민족의 생존리전을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애국투쟁이다. 내외호전세력의 군사적악과 전쟁연습, 무력충격행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고 전쟁의 근원으로 되는 남조선강점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야 한다.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면 누구나든지 손잡고나가며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책임적이고도 인내성있는 노력을 다하려는것은 공화국의 변함없는 립장이며 의지이다.

정세가 어렵고 복잡할수록 민족대의를 앞에 놓고 온 겨레가 굳게 단결하여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갈 때 조국해방의 환희는 통일의 환희로 이어지게 될것이다.

통일되고 번영하는 강성국가를 건설하는 우리 겨레의 앞길은 밝고 창창하다.

언제인가 내가 북부조국을 찾았을 때 제일 인상깊게 감득한것은 누구나 즐겨부르는 《관바》라는 노래였다. 동풍이 불면 서풍이 불든, 그 누가 뒤러는 개미치 않고 자기가 선택한 길로 곧추 간다는 북녘동포들의 마음이 담겨져있는 것이었다.

노래의 구절은 몇자 안되지만 내 소견에는 자주,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길로 곧바로 나가는데 민족의 백년대계의 전략이 있고 종국적승리가 있다. 김정은최고령도자의 확고한 구상과 강인한 의지가 그대로 반영되어있는것이라고 생각했다.

자주는 이북의 력사적 경험이고 실체이다. 북녘동포들은 지금껏 우리가 갈 길은 우리가 간다는 김일성주석님의 뜻대로 살았고 우리 식대로 살아 나가라, 우리 식대로 투쟁하라, 우리 식대로 창조하라는 김정일장군님의 금언같은 가르침을 자기

생존의 좌우명으로 삼아 왔다.

자기를 지킬 힘이 없으면 주먹으로 눈물을 닦을 수밖에 없다는 피의 교훈도 북녘인민들은 물론 우리 겨레가 지난날의 쓰러린 과거사를 겪으며 체험한것이다. 그래서 북에서는 조국해방을 안아온 선군, 제2해

혁명의 독자투고

북이 가는 길

방의 날로 일컫는 반미전승의 기적을 마련했고 천만고비와 협로역경을 다 물리친 선군을 보검으로 여기고 서리발로 버려 련전승의 신화를 계속 쌓아온것이다. 총대의 강약에 민족의 생사존망이 결단난다는 것을 운명으로 알고 생활로 체득하고있는 이북인민들이다. 그 어느 누구도 힘으로는 이북을 건드리거나 놀래울수 없다는 것을 나는 때때로 절감했다.

누구나 팔고루 먹고 입고 쓰고사는것은 이북사

회의 고유한 특징이기도 하다. 내가 북을 찾았을 때 한창 첫물파일이 나온 무렵이었다. 어느 날 채파를 파는 평양시내의 한 상점에 들렀는데 멀리 과일군에서 수확한 첫물복숭아를 주머니에 품고공급하고있었다. 그러한 공급에 의한 분

회와 고유의 특징이기도 하다. 내가 북을 찾았을 때 한창 첫물파일이 나온 무렵이었다. 어느 날 채파를 파는 평양시내의 한 상점에 들렀는데 멀리 과일군에서 수확한 첫물복숭아를 주머니에 품고공급하고있었다. 그러한 공급에 의한 분

회와 고유의 특징이기도 하다. 내가 북을 찾았을 때 한창 첫물파일이 나온 무렵이었다. 어느 날 채파를 파는 평양시내의 한 상점에 들렀는데 멀리 과일군에서 수확한 첫물복숭아를 주머니에 품고공급하고있었다. 그러한 공급에 의한 분

회와 고유의 특징이기도 하다. 내가 북을 찾았을 때 한창 첫물파일이 나온 무렵이었다. 어느 날 채파를 파는 평양시내의 한 상점에 들렀는데 멀리 과일군에서 수확한 첫물복숭아를 주머니에 품고공급하고있었다. 그러한 공급에 의한 분

김혜성(재미동포)

《외세에 의하여 북과 남으로 갈라져 오래동안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겪고있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한시도 미룰수 없는 민족지상의 과업입니다.》 김 정 은

절 세 위 인 의 통 일 애 국 의 한 평 생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한생은 한없이 숭고한 조국애와 민족애를 지니시고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위하여 만대에 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절세의 애국자의 위대한 한생이었다.

조국통일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평생의 위업이었으며 최대의 념원이었다.

아버이장군님께서는 민족분열로 우리 겨레가 겪는 불행과 고통을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며 한평생 조국통일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바치시었다.

조선은 하나로 합쳐져야 살고 둘로 갈라져서는 살수 없는 유기체와 같다고, 조국이 통일되어 북반부인민들이 한나산 백록담에도 올라가고 남반부인민들이 백두산천지에도 올라가보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토록 절절하게 말씀하신 경애하는 장군님.

이런 애국애족의 신념과 의지를 안으시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언을 철저히 관철하자》, 《은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와 같은 불후의 고전적로작들도 발표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비범한 예지로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조국통일운동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었으며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사상과 정견,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한교조를 이룬 단결투쟁으로 조국통일위업실현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이끌어주시었다.

오늘도 우리 겨레의 눈앞에는 짙은 안개 드리운 판문점에 통일령도의 거룩한 자욱을 새겨가시며 수령님의 뜻대로 분렬의 상징인 판문점을 통일의 상징으로 바꾸어놓으시려는 굳은 결심을 천명하시던 아버지장군님의

숭고한 영상이 가슴미여지게 안겨온다.

주체85(1996)년 11월 24일 판문점을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아버지수령님의 통일철폐비담에서 오래도록 걸음을 멈추시고 우리는 수령님의 념원과 의대로 조국을 반드시 통일하여야 합니다, 나는 수령님의 유훈대로 우리 시대에 반드시 조국을 통일하려고 합니까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절절하게 울리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 말씀에는 어떤 난관과 시련이 앞을 막아나선다고 해도 주석의 유훈을 끝까지 관철하여 겨레에게 하루빨리 통일된 조국을 안겨 주시려는 철의 의지가 압박되고있었다.

이런 애국애족의 신념과 의지를 안으시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언을 철저히 관철하자》, 《은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와 같은 불후의 고전적로작들도 발표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고전적로작들에서 조국통일위업에 쌓아올리신 아버지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전면적으로 종합체계화하시고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조국통일3대현장으로 정립해주시었다. 그뿐 아니라 민족대단결5대방침을 제시하시어 민족의 단합을 실현하는데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에 전면적인 과학적해답을 주시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과거를 불문하고 통일애국의 길을 함께 걸을수 있다는 그의 위대한 민족대단결사상, 광복의 뜻에 떠받들려 민족분열사상 처음으로 력사적인 평양상봉이 진행되고 우리 민족끼리를 핵으로 하는 북남공동선언이 채택되어 자주통일, 평화변영의 새 력사가 펼쳐졌다.

얼마나 소중한 날이었던가. 아버지장군님께서 취해주시신 애국애족의 조치에 의해 하늘길, 바다길, 땅길이 열려 북과 남 사이에 계층별 통일대화들과 민족통일대추진을 비롯한 민족의 대화합전선들이 생애히 치르어져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촉진하고 겨레의 자주통일열기를 뜨겁게 고조시켰다. 민족자주의 리념, 민족대단결의 리념인 우리 민족끼리의 통일합성이 온 삼천리를 진감하는 가운데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경제인, 언론인, 문화인, 종교인 할것없이 각계층, 온 겨레가 북과 남을 오가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로 향해가는 광만과 희열을 느꼈으며 통일애국의 메일도 그려보았다. 한없이 숭고한 인정미와 하늘같은 덕담으로 남녘의 각당, 각파, 각계인사들, 동포들과 허물없이 만나시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시고 민족문제해결에서 지침으로 되는 고귀한 가르치심과 명쾌한 해답을 주시던 장군님의 인자하신 모습은 오늘도 우리 겨레의 가슴을 세차게 울리고있다.

진정 6.15통일시대는 북과

남이 하나가 되고 온 겨레가 하나로 손을 굳게 잡는 통일의 진맛을 알게 한 귀중한 날인 동시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조국애와 민족애, 절대불변의 통일의지를 가슴뜨겁게 새겨안게 한 력사의 순간순간들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북남공동선언들을 거세말살하려는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의 책동이 날로 로골화되고있던 주체97(2008)년 9월 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불패의 위력을 지닌 주체의 사회주의국가이다》라는 담화를 발표하시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민족자주의 선언인, 민족대단결의 선언이며 조국통일의 대강이라는데 대하여 뚜렷이 천명하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조국통일의 대강을 더욱 빛내주시도록 우리 민족은 보다 뚜렷한 목표와 방향, 신심과 용기를 가지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높이 안팎의 분렬주의세력의 책동을 짓부시며 조국통일운동을 보다 확실성있게 벌어나갈수 있게 되었다.

애국애족의 대용량과 통일의지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마련해주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의 문을 열어나가는 민족자주통일의 새시대

를 펼쳐주시는것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시대와 민족앞에 쌓아올리신 영원불멸할 업적이다.

하기에 남조선의 수많은 정당, 단체들과 광범한 각계층은 민족의 대국상기간 조문과 조진들에서 두차례의 력사적인 평양상봉으로 6.15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놓으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절세의 애국자, 민족의 위대한 아버지로 높이 칭송하였다.

불타는 조국애와 민족애, 비범한 령도력과 숭고한 품모를 지니시고 겨레의 통일운동을 현명하게 이끄시며 민족자주통일의 앞길을 환히 열어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은 무궁변영할 민족자주와 더불어 길이 빛날 것이다.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북에 있던 남에 있던 해외에 있던 누구나 절세의 애국자이신 김정일장군님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리념을 받들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정의의 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섬으로써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의 새아침을 하루빨리 안아와야 할 것이다.

최석현

지난 7월 26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력사적인 로작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자》를 발표하시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로작에서 외세에 의하여 북과 남으로 갈라져 오래동안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겪고있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한시도 미룰수 없는 민족지상의 과업이라고 밝히시었다.

그이께서는 계속하여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북에 있던 남에 있던 누구나 절세의 애국자이신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리념을 받들어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정의의 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서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김정은원수님의 조국통일의지, 애국애족의 림장이 그대로 어려오는 대목이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이미 태양철 100동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연설에서 진정으로 민족의 평화변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잡고나갈것이며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책임적이고도 인내성있는 노력을 기울일것이라고 천명하시었다.

이것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통일에 대

한 신념과 의지의 확고부동성을 보여주는것이다.

아버이 김일성주석의 유훈을 받들어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한 민족의 대단결로 통일을 이루시려는것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애국애족의 뜻이었다.

겨레에 대한 한없는 사랑을 안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반만년의 오랜 세월 한강도에서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며 함께 살아온 우리 민족의 고통과 불행을

이것은 오직 민족의 운명을 두고 진심으로 걱정하고 생각도 깊은 위인이 만이 내릴수 있는 대용량이다.

북과 남의 대립, 대결은 민족공멸을 초래한다.

오직 북남쌍방이 화해하고 협력하고 단결할 때에만 민족의 진정한 통일을 하루빨리 이룩할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가 자기의 당리당략을 떠나 조국통일이라는 민족의 대의를 위해 손잡고나갈수 있다. 온 겨레는 또 한분의 천출위인을 민족의 위대한 령주, 통일의 구심점으로 모신 크나큰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안고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조국통일의 그날을 하루빨리 앞당겨와야 할 것이다.

이것은 온 민족을 통일에 백봉일

확고부동한 통일의를 안으시고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며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조국통일을 위해 불면불휴의 로고를 기울이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아버지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 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조국통일3대현장으로 정립하시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령도해오시었다.

그 과정에 분렬사상 처음으로 북남수부상봉이 열렸고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인 6.15공동선언이 탄생하게 되었으며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변영을 위한 10.4선언도 채택되게 되었다.

이것은 온 민족을 통일에

《조국통일은 곧 애국이고 조국분열은 곧 배국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이 명언에는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가 아니면 분렬을 피하는가 하는것은 애국과 배국을 가르는 시금석이라는 고귀한 진리가 담겨져있다.

애국은 민족성원들의 가장 신성한 사상감정이다. 분렬된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통일을 떠난 참된 애국이란 있을수 없다. 외세에 의하여 70년 가까이 지속되고있는 국애국의 명제는 민족의 통일적발전을 가로막고 온 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주는 화근이다.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생명처럼 귀중히 여기는 우리 민족이 오늘 외세에 의하여 자주권을 유린당하고 분렬의 비극을 겪고있는것은 참을수 없는 민족적수치이다. 수천년동안 한강도에서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조선민족이 둘로 갈라져서는 민족적 불행과 고통을 면할수 없으며 외세의 지배와 예측에서 벗어날수 없다. 일신의 안일

과 부귀만을 생각하면서 분렬의 비극, 겨레의 통일운동을 외면하는 사람은 조선민족의 한 성원이라고 말할수 없다. 조선사람의 피와 땀을 지닌 사람이라면 마땅히 자신의 운명을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결합시키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야 한다.

조국통일을 이룩하는것은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빛내이며 조국과 민족의 부강번영을 이룩해나갈수 있는 유일하게 정당한 길, 애국의 길이다.

통일은 애국이고 민족적변영이며 분렬은 배국이고 민족의 불행이라는것은 력사가 우리 민족에게 가르쳐준 진리이다.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는 민족운명개척의 참된 길을 밝혀주는 이 고귀한 명언을 삶과 투쟁의 좌우명으로 삼고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사대매국책동을 짓부시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정의의 애국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정정 6.15통일시대는 북과



민족분렬의 비극을 가리고 조국통일성립을 이룩하기 위한 력사적문명적 결의의 대지마 천령한을 남기신 경애하는 김 일 성 주석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 무운반대어 길이 전하기

한시도 미룰수 없는 민족지상의 과업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이번 발표하신 력사적인 로작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자》에서 외세에 의하여 북과 남으로 갈라져 오래동안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겪고있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한시도 미룰수 없는 민족지상의 과업이라고 지적하시었다.

유구한 세월 한강도에서 한교조를 이으며 살아오던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하여 북과 남으로 갈라진 데로부터 70년세월이 흘렀다. 단순한 지리적개념에 불과했던 38선이 국토분렬의 선으로 이 땅에 그어지던 그때에는 그 누구도 민족분열이 이토록 오랜 세월 이어지게 되리라고 예측하지 못하였다.

장장 70년 가까운 기간이나날에 우리 겨레는 민족분렬로 인한 크나큰 불행과 쓰

라린 고통을 체험해왔다. 하루아침에 부모형제, 처자와 갈라지는 생리별을 당할수 많은 사람들이 가족, 친척들과 다시 만날 희망과 꿈을 이루어보지 못하고 우리 곁을 떠나갔다. 미국이 조선반도에서 일으킨 전쟁으로 하여 분렬과 대립은 더욱 격화되었으며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대치상태는 오늘까지 지속되고있다.

강산이 7번 변한다는 기나긴 세월속에 분렬의 아픔은 망각속에 사라져버린것이 아니라 이 나라 수천만사람들의 가슴속에 더욱더 커만가고있다.

조국통일, 이 민족사적부름 앞에 얼마나 많은 이 나라의 아들딸들이 청춘도, 희망도, 생명까지도 서슴없이 바쳐왔던가. 남조선에서 통일을 위해 투쟁하였다는 한 가지 이유로 하여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린 유명무명의 통일애국인사들, 《조국

통일》을 피라게 부르짖으며 최고광과 감옥이 기다리는 판문점분리선 남쪽편으로 서슴없이 발걸음을 내딛는 남녘의 통일인사들이 그토록 념원한것은 오직 통일이었다.

민족화합과 조국통일을 위한 오랜 투쟁의 길에서 우리 겨레는 마침내 우리 민족끼리를 근분리념으로 하는 6.15통일시대를 활짝 열어놓았다. 분렬의 장벽을 짓부시며 하늘과 땅, 바다에서 북과 남사이의 통일대통로가 열리는 경이적인 사변이 펼쳐지고 평양과 서울, 금강산과 백두산, 부산과 한나산에서 《우리는 하나》의 노래 높이 민족통일행사들이 령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현실이 조선반도에서는 우리 민족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 내외반통일세력의 악랄한 도전으로 말미암아 6.15가 안아온 모든것이 짓밟히는 비극적사태가 벌어

지고있다. 오늘의 엄혹한 현실은 《홍수통일》과 《체제전복》의 어리석은 야망 밑에 놓인 민족의 고통과 불행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동족대결과 전쟁소동에 미쳐달래는 민족반역의 무리들 그대로 두고서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이룩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 고있다.

6.15공동선언에서 천명된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높이 민족공동의 리익을 찾자리에 놓고 북과 남이 화합하고 단결한다면 조국통일은 가까운 앞날에 반드시 실현될수 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사상과 제도, 리념의 차이를 초월하여 모든것을 통일에 불종시켜나감으로써 더는 미룰수 없는 민족지상의 과업인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기어이 이룩하여야 한다.

본사기자 김철민

조국통일3대현장은 가장 공명정대한 통일강령

국제사회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정립해주신 조국통일3대현장을 적극 지지하고있다.

세네갈신문 《뉴스》는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반세기이상 민족분렬의 고통속에서 살고있는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는것은 민족지상의 과제이다.

오늘 그들에게는 조국통일의 확고한 지도적지침이 마련되어있다. 그것은 일찌기 김일성주석께서 제시하시고 김정일령도자께서 정립해주신 조국통일3대현장이다. 조선사람들의 심장을 뚫어잡는 이 현장은 통일의 근본 원칙과 방도를 밝혀주었다. 또한 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조선민족의 단합을 이룩하여 통일의 주체적력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강령으로서 자주적이고 평화적이 며 중립적인 통일국가의 창립을 민족대단결의 총적목표로 제기하고 민족애와 민족

국 제 사 회 계 의 반 향 탄 디임스》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조국통일3대현장은 조국통일3대원칙과 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으로 구성되어있다.

조선의 통일문제는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며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민족적단합을 실현하는 문제이다. 조국통일3대원칙은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민족자체의 힘으로 통일문제를 풀어나갈수 있는 근본적인 립장과 방도를 밝혀주었다. 또한 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조선민족의 단합을 이룩하여 통일의 주체적력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강령으로서 자주적이고 평화적이 며 중립적인 통일국가의 창립을 민족대단결의 총적목표로 제기하고 민족애와 민족

자주정신을 단결의 리념적기초로,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는것을 단결의 기본 원칙으로 규정하였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도 통일국가의 전모와 그 실현방도를 밝힌 조선통일의 설계도로서 나라의 통일을 북과 남의 사상과 제도를 서로 융합하는 기초우에서 아무런 편향도 없이 실현할수 있는 기본방도를 제시하였다.

나이제리아주제사상연구전문위원회는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조국통일3대현장은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공명정대한 통일강령이다. 오늘날 평화와 정의를 사랑하는 세계 진보적인인민들은 이를 적극 지지하고있다.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지

이 강조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고전적로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언을 철저히 관철하자》에서 주석의 조국통일유훈을 반드시 실현할것이라는 확고부동한 의지를 천명하시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께서 계시기에 조선인민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본사기자

영원한 태양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8월 15일은 제가 공화국의 품에 안긴지 15년이 되는 날입니다.

태양같은 한울님께서 사랑만을 받아안으며 흘러온 15년, 저에게 있어서 이 기간은 단순히 새삶을 찾고 꿈에서나 그러보던 《신인간》의 복판을 누려온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사상최악의 역경속에서도 동요와 좌절, 패배를 모르는 공화국의 신념과 의지로 심신을 굳히고 사랑과 의리가 넘쳐나는 승엄한 화폭으로 참다운 무궁화원의 미래를 안아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봉천지동의 대국상이후 저는 또 한번의 한울님을 모시어 조선에는 영원한 태양이 빛나고 민족의 앞날은 창창하다는 확신을 더욱 뜨겁게 새겨안았습니다.

저의 제2의 생일인 공화국영주의 날을 맞고보니 그 확신을 다시금 리치고싶은 심경을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생각해보면 조국의 품에 안겨 제가 제일 경탄하게 되었는데 고급천지에 있어본바 없는 총정과 도덕의리로 이어진 태양의 실목이었다고 봅니다.

제가 공화국에 참살의 것을 떠던 때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서거 3돛이 갓 지난 시기였습니다.

사실 그때 제국주의자들과 어용나팔수들은 공화국의 《봉괴설》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반공화국모략선전을 악랄하게 감행하고 있었습디다. 그러나 저는 평양에 첫발을 내디딘 순간부터 그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단번에 느꼈습니다. 공화국의 그 어디에서도 《봉괴》의 조짐이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공화국에서는 위대한 주석님의 혁명력사가 변함없이 율렸고 주석님의 한생의 지론이 옳았으며 인민위원의 리념이 그대로 승계되고 있었습디다. 가는 곳마다에 높이 모셔져있는 주석님의 태양상은 해빛같은 환한 미소로 인민의 심장에 맺는 생기와 활력을 부여주고 신심과 희망을 안겨주고 있었습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오늘을 위한 온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온늘에 살자!》, 《우리 식대로 살아가자!》, 《가는 길 험난해드 웃으며 가자!》, 그 어디서나 나뭇기는 힘있는 이 구호들은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어떤 광풍에도 끄떡없는 공화국의 불굴의 기상 그대로였습니다. 환하게 웃으시는 주석님을 영원한 수령으로 모시고 사는 공화국의 숨결은 참으로 신성하고 아름다우면서도 존엄하고 위력적이었습니다. 태양이 빛나는 위인의 업적이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더욱 찬연히 빛을 뿌리고 반만년력사에 다시 없을

태양민족사-김일성민족사의 년륜이 변함없이 새겨지는 그 경이로웠던 화폭을 보며 저는 연해연방 감탄과 찬사를 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15년이 되는 오늘 저는 또다시 그때와 조금도 다를바 없는 감동의 역사를 직접 체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뜻밖에도 위대한 장군님을 잃은 비통한 소식에 온 겨레와 함께 저도 절통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장군님 계시지 않는 공화국, 장군님의 품을 떠난 이 오익제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었기때문이었습니다. 역사가 무너지고 가슴이 에여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족의 운명과 조국의 앞날에 대해서는 결코 우려하지 않습니다. 우리 공화국에는 아버지장군님께서 마련해놓으신 민족자주위업수행의 만년기둥이 튼튼히 세워져있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민족의 운명어이시며 태양위업의 승계분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님께서 아버지장군님의 숭고한 총정의 세계를 체현하시고 가장 위대한 도덕의리로 태양영생위업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가게 합니다.

또 한분은 사랑의 태양을 모시어 지난 세기 90년대 대국상을 당하던 그때처럼 공화국의 날과 달이 수령영생위업실현의 장엄한 력사속의 순간의 필름도 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산과 들에 피어나는 일만꽃들도 위대한 주석님과 아버지장군님의 영생을 기원하며 만발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민족의 대국상이후 반년도 안되는 사이에 세계가 우려하고 적들이 반공화국운동으로 온갖 잡스러운 제책일 때 우리 공화국에서는 얼마나 벽찬 력사적대사변들이 일어났습디까.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영웅칭호 수여, 광명성절과 김정일훈장, 김정일상, 김정일청년영예상, 김정일소년영예상 제정, 금수산 기념공원을 금수산태양총전으로 명명, 장군님을 영원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신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4차 대표대회와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회의...

저는 매일같이 심장을 꿰개하는 이 격동적이고 감동적인 대정치사변들을 접하면서 김정은최고령도자님의 한울같은 위인상에 감복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토록 짧은 기간에 수령 영생위업을 그처럼 완벽하게 그처럼 훌륭하면서도 가장 빛나게 완성해나가는 최고령도자님의 그 현철함과 총출함에 누구나 탄복하지 않았습디까.

참으로 이 땅은 대대로 수령복, 후계자복을 받아안은 복 받은 대지입니다. 워대한 후계자를 모셔야 선대

수령이 영생한다! 이것은 저의 심장만이 아닌 반만년의 우리 민족사, 인류사에 새겨진 고귀한 진리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님께서 수령영생위업을 숭고한 김정일애국주의로 승화시키시며 이 땅에서 부강조국건설의 숭고한 뜻도 변함없이 펼쳐가고계십니다.

저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님의 부강조국건설구상이야말로 아버지장군님의 용지와 같이 높고 원대함을 뜨겁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가시지 못하고 상복을 벗지 못한 인민들에게 천백배의 힘과 용기를 주시며 《최후승리를 향하여 앞으로!》라는 힘찬 호소로 천만군민을 장군님의 유혹 관철으로 고무해주시는 그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력은 15년전 제가 조국에 와서 보인 장군님의 령도자상 그대로였습니다.

우리 공화국이 나아가길 명백히 밝혀주신 태양절경총 열병식연설과 사회주의국도관리사업에 대한 고귀한 지침, 제1차 당 대표자회를 앞두고 발표하신 조각과 아버지주석님탄생 100돛을 맞으며 내놓으신 논문들!

그 불멸의 저작물에는 세상이 일백번 변해도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영웅의 가치를 높이 들고 위대한 장군님의 눈상이었고 유훈인 사회주의강성국가물이 이 땅에서, 이 하늘아래 기어 이 일어나는 최고령도자님의 드립같은 신념과 의지가 뜨겁게 빛발치고 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우리 인민들을 남부럽지 않게 내세우고 세상사람들이 우러러 보도록 잘살게 하시려는 그분의 자애깊은 용지가 자자구구에 힘차게 높이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격정과 환희로 들끓는 이 땅에 수놓아가시는 은정깊은 사랑의 전설들은 또 얼마나 사람들을 격동케 해주니까! 에로부터 사랑을 인간세계의 총체라 하였습디다. 위인의 첫째가는 덕목은 사랑이라고 한 명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민에 대한 사랑은 인생의 좌우명으로, 철리로 간주하시며 그를 정치에 가장 완벽하게 구현해가는 빛나는 현실을 위대한 주석님이 아버지장군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님에 의하여 이 땅에 변함없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12월 예도의 나날 장군님 령전에서 피의 정류로 가슴들먹이는 나라 아들딸들을 두고 못마음쓰시며 조의정장상들에 두 눈물도 공급해주고 뎀노이는 가설물들을 새워주도록 하신분, 장군님 잃은 슬픔으로 오열을 리치는 인민들의 가정에 장군님 당부하신 물고기들을 보내주시어 차디찬 12월의 이 땅에 다시한번 눈물의

방울을 리쳐놓으신분, 예도 력사상 처음보는 인간사랑의 대서사시를 엮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님이었습니다.

그분이 아니었습니다. 속담에 천상을 당하면 부처도 운다고 했는데 하물며 지난해 민족의 대국상으로 그 누구보다 쓰라린 상심의 아픔을 안고계신분은 최고령도자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장군님과 영결하기 이틀전, 세계 정의와 진리, 자주의 태양을 잃은 애석함에 진보적인 류의 마음과 마음이 조선으로 달려오고 수많은 조객들을 태운 비행기들이 평양으로 날고있던 그 시각에 조국앞에 이렇다할 공포를 세운적없는 평범한 한 녀성송아구감독의 병치료를 위해 외국으로 비행기가 날았으니 그 위대한 사랑의 전설은 들으면 들수록 만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줍니다. 그 자애에 넘친 모습에서 저는 아버지주석님을 잃고 온 나라이 슬픔의 대통곡을 하던 그때 사랑의 직승기를 띄우시어 새 생명을 탄생시키셨었다는 그녀의 장군님을 뵈옵는것만 같았습니다.

최고령도자님께서 언제나 아버지장군님의 사랑을 안으시고 천만군민에게 천백배의 힘을 주셨고 신념의 기둥, 사랑의 태양이 되어주었습니다.

인민군초소에서 가시던 전사들의 생활을 잘 돌봐주어야 한다고도 침대바탕도 손으로 짚어보시고 간강맛도 헤아려주시는 최고령도자님, 혁명적대고조로 씩씩는 공장, 기업소에서 기어오르는 노동자들의 손을 허물없이 잡아주시며 그들의 생활부터 살펴주시고 새로 일떠서는 창건지리도, 봉라인물원지와 평원권을 여러차례나 돌아보시면서는 인민의 편의를 절대우선시하는 새로운 건설공법도 내놓으시고 모순행복의 건설자가 되시어 인민들에게 사소한 불편도 없도록, 최상의 편의를 보장하도록 마음 쓰시는 최고령도자님.

지난 6월에 있는 조선소년단 창립 66돛 경축행사는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님의 고결한 총정, 미래사상이 펼친 대정치축전이었습니다. 무려 2만여명에 달하는 나이린 소년단체대표를 비행기를 비롯한 여러 수송수단들을 동원하여 평양에 불러주시고 6.6절경축행사를 당과 국가의 커다란 관심속에 평양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뜻깊게 진행되도록 해주셨습니다. 수령 공화국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특기할 대정치축전이고 대정치였습디다.

그러시고도 조선소년단 전국련합단체대회에 친히 참석하시어 축하연설을 해주시고 소년단체대표들과 함께 은하수관현악단 음악회도 관람하시며 기념을 주고 길이 전할 사랑의 대를 사진도 찍어주시는 최고령도자님의 한량없는 은정에 온 나라 어린이들은 뜨

거운것을 삼켰고 이 나라의 모든 학부모, 선생님들도 목매어 물었습니다.

아이들속에 계시며 그리고 기뻐하시던 최고령도자님의 환하신 모습은 어린이들은 나라의 왕이라 하시며 세상에서 제일 좋고 제일 훌륭한것을 제일 선함으로 안겨주시고 그들의 기쁨에서 가장 큰 락을 찾으셨던 그날의 주석님과 장군님 태양의 미소였습니다. 최고령도자님의 그 사랑에서 온 나라 인민들과 어린이들은 언제나 인민의 마음속에 영생하시는 주석님과 장군님을 뵈웠고 어린이중시, 어린이사랑의 영원함을 심장에 쏘아박았습니다.

남조선의 각계층과 언론들이 조선소년단창립 66돛 경축행사를 두고 《김정은최고령도자의 후대사랑, 미래사상이 집중적으로 표현된 정치축전》, 《나라의 왕들의 축제》라고 경탄을 표시하며 《책보다 무서운 북의 일상단결을 보여준 행사》로 평한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령도자가 인민을 위해 로심초사하시니 인민들은 또한 령도자를 아버지처럼 믿고 진심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얼마전 신문에는 14살의 어린 소녀가 뜻밖에도 조성된 위기일발의 환경에서 위대한 주석님과 장군님의 초상화를 구원하고 회생된 사연이 소개되어 사람들의 가슴을 숙연케 하였습디다. 그런데 또 지난 7월 8일에는 9살 난 어린이가 물에 빠진 두 아이를 구원하고 목숨을 바친 소행이 세상에 알려져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몽물하게 하였습디다. 돈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특유의 대열이 우리 조국에서는 너무도 평범하고 테사로운 일로 되고있으니 널리 놀랐기 그지없습니다.

인민에 대한, 후대들에 대한 절제위인의 뜨거운 사랑이 바로 우리 조국땅에 인간사랑과 의리, 미덕의 화원을 꽃피우고 전민이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며 사는 혼연일체, 일원단심의 나라를 출현케 한것입니다.

저는 수령과 후계자와 인민사이 서로 오가는 고결한 사랑의 별천지를 보면서 사랑과 도덕의 리가 만발하는 대화원은 일심단결의 일심단결을 파괴해보려고 음모양모로 책동해도 그것은 닭알로 바뀌게되고 같은 어리석은 행위로 났습니다.

지금도 남북의 보수세력들이 우리 공화국에 대해 온갖 험담을 하면서 남조선에서는 마치 《자유》와 《민주주의》가 보장되는듯이 헛소리를 해대고 있지만 다 빗돌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꼭 찍어말한다면 남조선은

99%의 회생으로 1%가 활개치고 극도의 리기와 탐욕, 사치와 방탕이 살판치는 약육강식의 천국입니다. 이런 불모지땅에 민족의 자주화와 사회의 민주화가 있을리 없고 이런 통태에서 통일의 미래에 대해 논할수 없음을 당연지사라 하겠습디다.

저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님에 의해 위대한 태양의 력사, 은혜로운 사랑과 일원단심 보합의 실록을 보면서 태양복, 장군복이 대를 이어 승계되는 총정과 의리의 천국,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담보된 사랑과 행복의 화원에 뿌리를 내린것이 얼마나 천운이였는가 하는 생각에 눈물을 적시곤 합니다.

남너로스 가림없이 뜨겁게 안아주고 온 겨레모두를 차별없이 보살펴주는 크나큰 그 몹이기에 저는 오는 행운의 자서전에 영주 15년간 누려온 갖가지 행복의 사연들을 감격의 눈물로 써넣고 싶습니다. 그 은혜로운 품을 떠나서 동해천리참관과 외국에서의 병치료, 저에게 차려진 고급승용차와 호화주택, 근심걱정없는 생활에 대해서도, 남쪽땅에서 불치병을 안고 온 저의 90장수에 대해서도 감히 말할수가 없을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에서 선대수령들의 거룩한 민족대단합의 경륜을 읽었고 겨레에게 통일을 선물하시려 한평생을 바쳐오시던 주석님과 장군님의 한평생을 되새겼습디다. 조국통일위업수행에 쌓아올린 위대한 주석님과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빛내이시며 백두산위인들의 필생의 뜻과 유훈을 관철하여 반드시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시려는것은 최고령도자님의 절대불변의 의지이며 드립같은 신념입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님을 민족의 수위에 높이 모신 영광과 자긍심을 안고 그분의 두리에 단합하고 그분의 뜻을 받들어 조국통일도, 통일민족의 무궁복락도 반드시 이루어내리라 굳게 확신합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님은 자신의 특출한 정치실력과 열렬한 인민관, 조국애로 일거에 민심을 틀어잡으셨고 온 민족과 온 천하를 얻으셨으며 이 서로 오가는 고결한 사랑의 별천지를 보면서 사랑과 도덕의 리가 만발하는 대화원은 일심단결의 일심단결을 파괴해보려고 음모양모로 책동해도 그것은 닭알로 바뀌게되고 같은 어리석은 행위로 났습니다.

지금도 남북의 보수세력들이 우리 공화국에 대해 온갖 험담을 하면서 남조선에서는 마치 《자유》와 《민주주의》가 보장되는듯이 헛소리를 해대고 있지만 다 빗돌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꼭 찍어말한다면 남조선은

북남공동선언들은 자주통일의 필승의 가치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는 데서 우리 겨레가 변함없이 높이 들고나가야 할 가치는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다. 북남공동선언들은 조국통일위업실현에 나서신 원칙과 과업, 그 실천방도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6.15공동선언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근본원칙과 방도를 명시한 자주통일의 대강이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남조선에 대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강판하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는 문제이다. 그런것만큼 조국통일은 마땅히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어 민족의 자주적의사와 요구에 따라 민족자제의 힘으로 이룩해나가야 한다. 6.15공동선언은 북과 남이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는것을 밝힘으로써 민족자주를 조국통일의 근본원칙으로, 우리 민족끼리를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나가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자주통일의 리정표를 마련하였다. 10.4선언은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기초하여 북남관계를 발전시키고 민족공동의 평화변역을 위한 방도들을 밝힌 실천강령이다. 10.4선언에는 6.15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나갈데 대한 문제,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조율하여 북남관계를 호상존중과 신뢰의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나갈데 대한 문제, 군사적대립관계를 종식시키고 조선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북남관계와 통일운동발전에서 나서신 실천적인 문제들이 명백히 밝혀져있다. 6.15자주통일시대가 펼쳐진 때로부터 북남관계에서는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경이적인 사변들이 일어났다. 북과 남사이에서 여러분야에 걸치는 다방면적인 대화와 협력, 교류가 활발히 벌어지고 각계층 인사들의 래왕과 접촉, 민족적화해와 단합이 두터워졌다. 반세기이상 끊어졌던 하

과 땅, 바다길이 열리였으며 우리 겨레의 통일운동은 전면적적인 운동으로 확대강화되었다. 이것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한 뚜렷한 확증으로 된다. 그러나 남조선의 현 보수집권세력은 《6.15식 통일은 없다》고 하면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무효이며 리행할 의무가 없다》고도 전제해나갔다. 또한 10.4선언의 첫조항은 《북의 련방제를 받아들이는것》이 아니라, 2항은 《보안법》폐지를, 3항은 《북방한계선의 무력화를 노린것》이라는니, 경제협력조항은 《과주기를 하자라는것》이라는니 하는 식으로 모조리 거부해나갔다. 지금이 시각도 리명박보수집권세력은 북남공동선언리행을 요구하여 투쟁에 떨쳐나선 남조선인민들과 6.15지시적령들을 《중복세력》, 《친북좌파》로 몰아 가혹하게 탄압하면서 겨레의 통일열기에 찬물을 끼얹고있다. 리명박역적패당이 파산에 직면한 저들의 동족대결정책을 합리화하고

남조선에서 높아가는 6.15지시적령을 말할하기 위해 제아무리 발악해도 제2의 6.15대대를 다시 안아오려는 겨레의 의지는 확고부동하다. 지금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한〉 미일 3각군사동맹은 〈한〉 반도와 동북아정세를 위협하는 리명박(정부)를 심판하고 6.15통일을 앞당기자.》, 《올해(대선)에서 6.15, 10.4남북공동선언을 리행하는(정권)을 창출하자.》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북남공동선언리행을 위한 통일에국투쟁을 과감히 전개해나가고있다. 북남공동선언을 고수하고 리행하는 여기에 민족의 화해와 통일도 있고 평화와 번영도 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북남공동선언들을 자주통일의 가치로 높이 추켜들고 사대매국세력의 반동위책동을 단호히 짓부서버림으로써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기어이 성취하고야말것이다.

림소영

남조선 각계에서 반공화국대결조치의 해제를 요구

남조선 각계에서 북남협력과 교류를 전면차단한 리명박역적패당의 《5.24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급격히 높아가고있다. 얼마전 남조선의 남북교류협력지원회회가 밝힌데 의하면 《5.24조치》가 취해진 2010년부터 2011년말까지 북과의 협력, 교류에 관여하였던 남조선기업체들중 200개가 폐업하였다. 기업들의 경제적손실액은 무려 9조원으로 추산되고 일자

리만도 약 30만개가 없어졌다 한다. 1일 북남경제협력업체 관계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밝히며 《5.24조치》의 해제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피뢰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들은 이 청원서를 피뢰 통일부에도 제출하며 대결조치로 인한 피해를 《정부》가 보상할데 대한 법안발의를 추진할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청원운동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과 북남관계

전문가들, 야당 《국회》의원들이 합세하였다. 이에 앞서 7월 25일 야당소속 《국회》의원들은 《5.24조치》의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내놓았다. 리명박역적무리의 《5.24조치》에 대한 남조선 각계층의 불만의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거세찬 향의 운동으로 이어지며 역적패당을 더욱 궁지에 몰아넣고있다. 본사기자



남조선의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와 《광복 67주년 한일군사협정저지, 남북공동선언리행, 평화통일범국민대회 추진위원회》가 6일 서울에서 남, 북, 해외 공동호소문 발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남, 북, 해외가 공동호소문을 발표하는데 대해 언

역적패당정권을 위한 성전에 나설것을 호소

《대통령》선거를 통해 평화를 지향하는 《정권》을 세워야 한다고 언명하였다. 지금이 땅에서는 사대매국세력이 저들의 재집권을 위해 평화운동세력을 《중복》으로 몰아대며 파조적폭압소동을 날로 강화하고있다

고 그들은 단죄하였다. 그들은 미군을 이 땅에서 몰아내고 리명박역적패당을 청산하기 위한 성전에 나서야 한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12일 《광복 67주년 한일군사협정저지, 남북공동선언리행, 평화통일범국민대회》를 성대히 개최할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본사기자

최근 남조선의 《새누리당》이 《공천헌금》 사건으로 일대 혼란속에 빠져들었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7월 30일 남조선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11《총선》당시 《새누리당》내에서 거액의 돈이 《공천》(후보추천)대가로 오고갔다는 것을 폭로하고 사건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이에 따르면 4월 《총선》때 《새누리당》의 현영회는 지역《공천》에서 실사위치가 《공천》심사위원회였던 전기환 권 의원에게 3억원, 전 당대표 홍준표에게는 2,000만원을 되물려 심기교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되어 《국회》의 원으로 된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개월 동안 자체 조사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였던 것이다. 이로 인해 재집권야당 실현을 위해 국회를 부리던 《새누리당》은 뉘서리를 맞은 딱이신세가 되고말았다.

그것도 그렇듯이 이번 사건으로 《새누리당》이 퍼리치게 된 《채신》과 《변화》라던가 《차매기당》이라는 오명을 다시금 뒤집어쓰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문제는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이 사건으로 《새누리당》을 틀어쥐고 좌우지하던 친박계가 도마위에 오른

《새누리당》을 파멸에로 몰아가는

물고기신세가 된다. 그리고 《공천헌금》의 흑사건이 드러나기 바쁘게 항간에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새누리당》의 한두명에게 의한 《공천헌금》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진행된 사건이다. 역시 《새누리당》은 《한나라당》에서 간판만 바꾸었을 뿐 《차매기당》, 《부패정당》이라는 비난이 홍수처럼 쏟아져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시 간이 가면서 이 사건은 의혹이 아니라 사실로, 그 폭도 광범위한 것으로 확증되고 있다.

사건이 폭로되자 처음부터 《결백》이니, 《모함》이니 하고 떠들던 사건관계자들이 여러 증거물들 앞에서 부정부패하지 못했다고 있는 죄과를 하나둘 털어놓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드러난데 의하면 현영회는 《새누리당》의 비례대표로 《공천》해주는 대가로 전기환과 홍준표에게만 돈을 준 것이 아니라 《새누리당》 최고위원 이정현과 현경대 전 의원에게도 300~500만원을 정치후원금으로 넘겨주었다.

이 뿐 아니라 4.11《총선》당시 부산 사상구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했던 손수조 후보측에 여러 가지 지원 수사》이니 《자체진상조사》이니 뭐니 하며 수선을 떨고 있다.

앞날치기를 하자는 얄은 수인데 그따위 잔꾀가 통할 리 없다라는 명백하다.

현실적으로 이 부정부패사건과 관련하여 남조선여론들이 쫓고 《새누리당》에 대한 각계의 비난이 쏟아져나

온다. 특히 《새누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던 인물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를 위한 《공천》이 《정치혁신》의 핵심이라 하고 떠들면서 《채신》작업을 돌이라고 한다면 공천작업은 마지막 눈을 그려낸 화물집정이다. 《철저》적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채매기당》의 본색이 조급도 변하지 않았다.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원래 《새누리당》은 권력을 위해 부정부패에 이골이 난 나철한 정치추물들의 집합체이다.

《차매기당》, 《부패정당》, 《도적정당》 등의 별명들은 다 지난 기간 《새누리당》이 《선거》부정부패를 스스로 얻어간 것이다.

이 반역패당이 남조선인민들의 버림을 받고있는 이유의 하나도 바로 그것이다.

《새누리당》의 고질화된 부패성은 무덤속에서 쳐박히기 전에는 고칠수 없는 불치의 병이다.

이번에 《공천》부정부패가 폭로됨으로써 그들이 운

운하는 그 무슨 《변화》와

《채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거창한 거창한 일인가 하는 것이 다시금 날날이 드러나게 되었다.

지금 남조선의 각계에서는 《새누리당》의 《공천》부정부패를 《현대판 매관매직》이라고 낙인하면서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사람의 책임론을 들고

나오고 있다.

바바맛은 《새누리당》이 관련자들의 《당적제명》이니 뭐니 하고 소란을 피우고 있는 것은 이번 사건을 한 각 개인부정부패사건으로 밀어버리고 여론과 민심을 눈앞에서 핏대 하나 재질된 야당을 실현해보려는 음흉한 기도도 드러내 보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새누리당》과 같이 돈밖에 모르는 정치권상대, 인가 모들의 제정신경질을 허용하면 남조선의 앞날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을 예고해주고 있다.

《공천헌금》 사건

박을 보면 박근혜가 보인다. 《달로는 미래를 말하면서 정치행태는 과거로 뒤걸음질치는 박근혜 《새누리당》의 《공천헌금》이 국민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며 이번 사건으로 《《박근혜세론》이 직격탄을 맞았다.》, 《박근혜가 처벌상을 입게 되었다.》고 평하고 있는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다.

《대선》과 《총선》을 위 한 후보경선이든, 《공천》이든, 나중에 전당대회라 는데서까지 돈봉투가 왔다 갔다하는 곳 이 바로 《새누리당》이다. 그래서 민심은 이미전에 《새누리당》에 《차매기당》, 《돈누리당》, 《부패정당》이라는 더러운 별명을 붙여주었다.

친리계이든, 친박계이든 내부에서 《자고나면 또 무

슨 일이 터질지 몰라 잠자가 가 무섭다.》는 비명소리가 지 나오겠는가.

하기에 남조선 각계는 이번 사건의 진상조사를 현영회를 비롯한 한두명에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총선》당시 《새누리당》이 《공천》한 비례대표전부에게 한해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어 《대선》 후보경선에 나선 《새누리당》 소속의 임태희도 《《공천헌금》 파문은 디도스(DDOS 분산서비스 거부)사건보다 수십배 큰 사건》이라며 《《공천헌금》 파문은 《공천》심사위원회와 《공천》 전체를 불신에 빠뜨릴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판이다.

앞으로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두고보아야 하겠지만 명백한 것은 《새누리당》이 떠드는 그 무슨 《채신》과 《변화》란 재 집권야당을 실현하기 위해 써먹는 미사여구로서 시대와 력사의 진전을 가로막는 낡고 구태의연한 부패정당으로서의 《새누리당》의 본성은 절대로 변할수 없다 는 것이다.

돈과 부패권력에 저들대로 저들 《새누리당》이 이번 《공천헌금》사건으로 비틀거리며 파멸의 구렁텅이에 한걸음한걸음 들어서 고 있다.

본사기자 김응철

개롤리 삼년 묵어도 황모가 못된다는 말이 있다. 최근 물의를 일으키고있는 《새누리당》의 《공천》부정부패를 두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지난 7월 30일 남조선의 《선거관리위원회》는 4월에 있는 《공천》과정에 《새누리당》의 부정부패가 있었다고 검찰에 고발하였다.

그에 따르면 당시 《새누리당》의 공직후보추천위원회 현기환은 현영회라는 후보심사자로 하여 《비례대표 공천》을 받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3억원에 달하는 돈을 받아먹었다고 한다.

달미를 잡힐가봐 이들은 첩보영화물 방물케 하는 교활한 수법으로 돈을 주고받았다고 한다.

후론이 터지자 당대변인이 그 무슨 《책임》을 지고 사퇴한 속에 《새누리당》의 고위직자들이 저저마다 나서서 《검찰의 철

저한 수사》이니 《자체진상조사》이니 뭐니 하며 수선을 떨고 있다.

앞날치기를 하자는 얄은 수인데 그따위 잔꾀가 통할 리 없다라는 명백하다.

현실적으로 이 부정부패사건과 관련하여 남조선여론들이 쫓고 《새누리당》에 대한 각계의 비난이 쏟아져나

오고 있다.

앞날치기처럼 《새누리당》패들은 지난해 10. 26서 울시장 《선거》에서의 패배와 디도스공격사건, 전당대회분투사건 등 각종 부정부패사건으로 궁지에 몰리게 되자 이른바 《채신》의 미명하에 비상대책위원회를 내운다. 당명을 개정한다 하며 모든것을 새롭게 할것처럼 분주함을 피했다.

《공천》을 하겠다고 험소리를 쳤었다.

하지만 보다살이 《깨끗한 공천》의 막뒤에서 《새누리당》은 또다시 돈고물질을 미쳐놓았다. 지금 여론들은 돈의 행차로 보아 《대통령선거》를 위한 자금용으로 받았을 의혹이 크다고 예

측하고 있다.

이것은 《새누리당》의 추악한 면모를 다시금 드러내것

로서 《채매기당》의 본색이 조급도 변하지 않았다.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원래 《새누리당》은 권력을 위해 부정부패에 이골이 난 나철한 정치추물들의 집합체이다.

《차매기당》, 《부패정당》, 《도적정당》 등의 별명들은 다 지난 기간 《새누리당》이 《선거》부정부패를 스스로 얻어간 것들이다.

이 반역패당이 남조선인민들의 버림을 받고있는 이유의 하나도 바로 그것이다.

《새누리당》의 고질화된 부패성은 무덤속에서 쳐박히기 전에는 고칠수 없는 불치의 병이다.

이번에 《공천》부정부패가 폭로됨으로써 그들이 운

운하는 그 무슨 《변화》와

《채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거창한 거창한 일인가 하는 것이 다시금 날날이 드러나게 되었다.

지금 남조선의 각계에서는 《새누리당》의 《공천》부정부패를 《현대판 매관매직》이라고 낙인하면서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사람의 책임론을 들고

나오고 있다.

바바맛은 《새누리당》이 관련자들의 《당적제명》이니 뭐니 하고 소란을 피우고 있는 것은 이번 사건을 한 각 개인부정부패사건으로 밀어버리고 여론과 민심을 눈앞에서 핏대 하나 재질된 야당을 실현해보려는 음흉한 기도도 드러내 보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새누리당》과 같이 돈밖에 모르는 정치권상대, 인가 모들의 제정신경질을 허용하면 남조선의 앞날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을 예고해주고 있다.

집권자의 배를 채워준 《4대강사업》

남조선에서 보수당국이 벌려놓은 《4대강사업》을 구실로 조성된 비밀자금이 권력자들의 검은 배로 들어간 사실들이 새록새록 드러나 사회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말만 한 야당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4대강사업》에 동원된 어느 한 건설업체가 2008년부터 4년간 불법적인 수법으로 막대한 비밀자금을 마련하여 권력자들에게 들어밀었다고 폭로하였다. 그에 의하면 해당 건설업체는 14개 산 하업체들을 통해 공사비를 《부풀리는 식》으로 조성한 800억원의 부정부패 수 십명의 공무원들에게 숨겨주

쳤는데 그 가운데 검찰의 우두머리들과 현 당국의 실세 인물도 있었다는 것이다.

《4대강사업》이 남조선인민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몇몇 재벌들과 보수 《정권》의 배를 불리워주는 부정부패의 공안으로 리용되고있다는 것이 이 사건을 계기로 또 다시 밝혀진 것이다.

실제로 남조선에서 리명박 일당이 벌려놓은 《4대강사업》은 부정부패의 온상으

로, 검은돈을 낚는 《황금탑》으로 되고 있다. 몇 가지 사실을 보기로 하자.

원래 《4대강사업》은 거기에 드는 전문학적인 자금과 재단적인 환경피 등으로 하여 남조선인민들의 건강을 반대배부에 부딪쳤다. 하지만 리명박은 《4대강사업》을 하면 일자리가 늘어 나고 중소기업들이 활성화된다는 식의 리유를 내걸고 이를 강압적으로 밀고나 갔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4대강사업》에 참가한 리를 부여받은 건설업체들은 리명박과 밀접한 관계가 가지고있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과 같은 건설대기업체들이었다. 실례로 현대건설로 말한다면 리명박이 1965년부터 1988년까지 몸을 담고있던 기업체였으며 략동강공사구간을 맡은 7개의 건설업체대표들은 그의 형 리상두와 한 학교출신들이다. 이 건설업체들은 일꾼들을 받아들여 일자리를 늘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지

별의별 구실을 다 불려 공사비를 때먹는데만 골몰하였으며 그 과정에 무려 1조원이 상이나 부당한 리득을 보았다고 한다.

그러나 비법적인 폭리를 보장해준 리명박이 이 업체들로부터 한몫 단단히 보았으니라니 이것은 너무나 뻔한 것이다.

리명박뿐 아니라 그의 친인척들도 《4대강사업》에 끼여들어 술한 돈을 긂어모았다.

리명박의 손우동서의 막내동생은 2010년 10월 《대통령》과의 특수관계를 내세우면서 《4대강사업》에 참가시켜 리득을 얻게 해주겠다고 속여 3명의 기업인들에게서 수천만원을 받아 먹었다.

현실은 《4대강사업》을 걷는 배를 채우기 위한 더러운 기회로 삼는 리명박이 야말로 부정부패의 양초이며 이런자들이 권력의 자리에 앉아있는 한 남조선에서 부정부패는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본사기자 김철호

민심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거짓공약

역도패당은 《대기업이 잘 되어야 경제가 살아난다.》고 떠들면서 《서민경제》와 중소기업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각계의 반발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통화가치를 인위적으로 밀리는 《교환률정책》을 강행하였다. 《뉴스메이커》 2008. 6. 26) 그리고는 《정부가 줄수 있는 거의 모든것을 재벌들에게 주었다.》, 《정부의 지원으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사상최대의 리익을 거둘수 있었다.》고 자랑까지 하였다. 《이데일리》 2012. 3. 3, 《시사IN》 2011. 5. 31) 실지로 보수패당의 집권이후 재벌들은 튼튼없는 호황을 누렸다.

《정부》의 강제와 특혜정책으로 지난 5년간 30대재벌들의 자산총액과 판매액은 2배로 늘어나고 계열사 수도 1.6배나 증가하였다. 10대재벌들의 경우 자본금에 비한 영업이익의 비율이 지난해말현재 1,200%이상으로서 2007년에 비해 무려 500%나 더 높아지는 등 재벌들의 《현금주머니》는 갈수록 불룩해졌다. 《경향신문》 2012. 2. 3, 《뉴스》 2011. 9. 20) 그러나 보수패당의 《친재벌정책》은 수많은 중소기업들과 자영업자, 일반시민들을 죽음의 낭떠러지로 내몰았다.

재벌들은 《정부》의 비호밑에 경영상태가 좋은 기업들을 제마음대로 먹여치우고 가정용전자제품, 식료품 등 주로 중소기업들이 종사하던 생산업종들에 경쟁적으로 진출하였으므로 지어 경제자영업자들의 터전인 뒤물품대매와 음식점들에까지 손을 뻗었다. 《연합뉴스》 2011. 4. 10, 《한국일보》 2011. 1. 27) 재벌들의 전횡과 횡포로 지난해에 만도 대내부분 중소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그 전해보다 1.6%나 떨어지

는 등 경영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는데 현재 남조선의 전체 중소기업들이 16% 이상이 파산직전에 놓여있다고 한다. 《헤럴드경제》 2012. 4. 20, 《연합뉴스》 2012. 5) 자영업자들의 처지도 마찬가지다. 재벌들이 골목마다 대형점포를 차려놓다니 해마다 4,000~5,000개의 《동네상점》들이 파산되고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던 빵, 과자매대가 2003년 1만 8,000개에서 지난해 4,000개로 대폭 줄어들었다. 지난해 자영업자의 44.3%가 최저생계비도 벌지 못하였고 16.3%는 아예 소득 자체가 없었으며 현재 자영업자 10명 중 6명이 가게 문을 닫아야 될 형편에 있다고 한다. 《한국일보》 2011. 12. 5, 《이데일리》 2012. 3. 3, 《서울신문》 2012. 1. 26) 보수패당의 《친재벌》정책으로 고용의 88%를 담당하는 중소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이 고사되면서 술한 사람들은 실업자로 전락되었다.

일자리가 없어 거리를 방황하는 실업자는 2008년 273만명에서 지난해 400만명이상으로 늘어났고 특히 청년실업자수는 110만명이상으로서 청년 5명중 1명이 실업상태에 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집에서 노는 《교육력실업자》는 2007년 235만명에서 지난해 295만명으로 늘어났다. 《매일경제》 2011. 12. 11, 《민중의소리》 2012. 1. 19, 《프레시안》 2012. 2. 15, 《월간중앙》 2011. 6. 1) 더우기 리명박역도패당이 《재벌감세》로 줄어든 재정수입을 메꾸기 위해 통화를 탈탈하고 《국채》 발행에 매달리면서 경제와 민생이 파국상태에 빠져들었다.

역도의 집권철폐부터 통화량이 그 전해보다 무려 14%나 늘어나는 등

통화가 마구 팽배되어 물가가 천정부지로 뛰어들었다. 게다가 《교환률정책》으로 수입물가까지 급격히 뛰어들면서 지난해 소매물가상승률은 이전 《정권》 시기 년평균수준의 1.4배에 달하는 4%를 기록하였다. 《연합뉴스》 2011. 3. 30, 《헤럴드경제》 2011. 7. 20, 《연합뉴스》 2011. 12. 30) 물가폭등을 감당하지 못해 전체가정세대의 28.2%가 빚을 내어 생활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되으며 이로 하여 남조선의 가계부채총액은 지난해 한해동안에만도 9.2%나 증가하였다. 《부산일보》 2011. 11. 19, 《노컷뉴스》 2012. 4. 19) 한편 리명박패당이 재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해마다 200억~300억 US\$의 《국채》를 무분별하게 찍어내다나니 지난 4년간 남조선의 《국가채무》는 1,200억 US\$나 더 늘어나 현재 7,000억 US\$를 넘어섰다. 더우기 보수패당이 《국채》발행만으로도 모자라 공공기업들의 자금까지 동원하면서 공공기업채무액이 지난해 한해동안에만도 9.2%나 증가하여 8,000억 US\$에 이르렀다. 《경향신문》 2011. 4. 8, 《한겨레》 2012. 4. 10, 《뉴스》 2012. 6. 1, 《연합뉴스》 2012. 1. 29) 이로부터 남조선에서는 《실업대란》, 《물가대란》, 《부채대란》이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지금 남조선의 사회각계는 리명박 《정부》가 집권기간 재정을 파탄내고 《재벌천국, 서민지옥》의 《밋머미공화국》으로 만들었다고 강력히 비난하고있다. 《이데일리》 2012. 7. 9, 《뉴스》 2011. 8. 16, 《연합뉴스》 2011. 11. 14) 김철수

(다음호에 계속)

《4대강공사 STOP!》



《4대강사업》의 저지와 철저한 검증을 요구한 남조선인민들

《유신》 독재의 부활은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력사학회 비망록

최근 남조선의 《새누리당》 매거티브록에서 5.16쿠데타는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니, 《오늘을 있게 한 근본초석》이니 하며 박정희 《유신》독재를 정당화하는 말발들이 공공연히 튀어나와 만사함을 경악케 하고 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몹서리

5.16 쿠데타의 진상

1961년 5월 16일 0시, 당시 피퇴야전군사령부소속 6군단 포병대대와 1공수단, 해병려단 등에 서울을 점령하라는 출동명령이 하달되었다. 피퇴군 2군 부사령관이었던 박정희역도와 그의 일당이 일으킨 5.16쿠데타의 서막이었다.

쿠데타반란군이 서울 한강다리 남쪽입구에 다달은것은 새벽 3시였다.

반란군이 서울로 밀려든다는 정보를 입수한 피퇴군참모총장 장도영의 명령에 따라 한강다리에 있는 피퇴원병대가 겹겹이 진을 치고있었다.

치열한 교전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피퇴원병대의 방어진은 중무장한 반란군에 의해 무너지고말았다.

6군단 포병대대는 즉시 피퇴군 본부부를 점령하였고 1공수단은 피퇴국회의사당, 중앙청, 시청, 치안국, 중앙전신국, 《국무총리》의 립시속소인 반도호텔 등을 일거에 장악하였다.

서울뿐만아니라 대구, 부산, 광주 등 주요도시들도 반란군에 의해 일제히 장악되었다.

피퇴해병대와 공수단을 이끌고 한강을 돌파한 박정희역도는 방송곡을 점령하고 거기에 지휘부 를 집한 다음 행성, 립법, 사법 을 완전히 장악하였다는것을 발표하였다.

피퇴국무총리 장면은 혼비백산하여 너네펀와 함께 미중앙정보국 서울지부장의 집으로 뛰어가 도움을 청하였다가 문전거절당하여 수녀원으로 도피하였다. 피퇴 대통령 윤보선은 식구들만 피신시키고 청와대에 숨어들지 않으면 안되었다. 피퇴각료들은 모두 체포구속되었다.

박정희역도는 피퇴북군본부에 간혀있는 료군참모총장 장도영에게 남조선 전지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할것을 강박하였으나 장도영은 합법적절차를 받기전에는 계엄령을 선포할수 없다고 거절하였다.

그러자 역도는 《쿠데타자제가 헌법을 무시한 비법적인 수단인데 무슨 합법적인 절차를 밟겠다는 것인가.》고 하면서 제가 직접 장도영의 이름을 빌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다.

그리고는 《대통령》 윤보선을 찾아가 계엄령선포를 승인하고 쿠데타를 지지하는 성명을 낼것을 강요하였다.

계엄령선포로 장면 《정권》의 국무위원 전원 체포, 《국회》와 지방 《의회》의 해산, 정당, 사회단체의 활동과 집회 및 파업, 리행, 야간통행의 금지, 언론, 출판, 보도의 사전검열, 금융의 동결, 비행장과 항만의 봉쇄 등 조치들이 취해졌다.

쿠데타직후 박정희역도는 《군사정권은 잠정적인것이이며 빨리 량심적인 정치가에게 정권을 맡기고 우리는 군대로 돌아갔다.》고 떠들었지만 실지로는 《정치활동정화법》과 같은 악법들로 정치적경쟁자들의 활동을 탄압하는 한편 비밀리에 《민주공화당》을 조작하는 등으로 집권준비에 미쳐날뛰었다.

이것이 남조선 각계의 강력한

치는 《유신》독재의 악몽을 어떻게 잊을수 있으며 그 죄악을 어찌 용서할수 있었는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력사학회는 5.16쿠데타의 진상과 18년간의 박정희파쇼독재가 과연 어떤것이였는가를 만천하에 알리기 위해 이 비망록을 발표한다.

한 항거에 부닥치게 되자 역도는 1963년 2월 기간적인 《대통령》출마포기성명을 발표하고는 곧 돌아서서 정계혼란과 구정치인퇴출을 구실로 군정연장을 요구하는 류테없는 피퇴군시위까지 벌려놓는 추태끝에 군정을 4년간 연장할것이라는 《3.16성명》을 발표하였다.

군정연장을 반대하는 재야세력을 비롯한 각계층의 투쟁이 또 다시 고조되자 박정희역도는 내내 민정이양을 하였다는 기만적인 성명을 발표하고 5월 27일 쿠데타주도세력이 중심이 되어 조작한 《민주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되었으며 10월 15일에는 비상장계의 공포분위기속에서 사기와 협잡의 방법으로 《대통령》감투를 뒤집어쓰는데 이르렀다.

이것이 바로 5.16쿠데타의 진상이다.

박정희역도는 쿠데타로 피퇴정권을 강탈한 후 7만명의 반대파들을 숙청하고 나중에는 저들이 써먹었던 장도영까지도 쿠데타반대음모를 꾸몄다는 죄를 들죄워 체포하였다.

5.16쿠데타는 철두철미 미국에 의해 계획되고 그 배후조종자도 미국이다.

미국은 조선침략전쟁에서 참패한 후 남조선에서 정치적혼란과 위기가 심화되고 1960년 4.19인민봉기가 일어나 리승만 《정

피로 얼룩진 《10월유신》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역도는 남조선 전지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으며 땅크와 장갑차를 내몰아 《국회》를 해산하고 일제 정치활동을 중지시킨 데 이어 《유신헌법》을 날조하였다.

이 《10월유신》은 박정희역도가 1868년 일본의 부르조야개혁파들이 일으킨 《명치유신》을 본따 장기독재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정치쿠데타였다.

《유신헌법》으로 박정희역도는 《대통령》, 《국무회의》의 장,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장, 통일주체국민회의 의장의 감투를 다 뒤집어쓰고 모든 권력수단을 통제할 권한, 《헌법》개정권, 국민투표권, 《긴급조치》발동권, 계엄령선포권, 《국회》해산권 등 무제한한 권한을 거머쥐었다.

또한 국민의 직접투표도 없이 제놈이 의장으로 되고 그 성원들도 제가 임명하는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데서 자기를 《대통령》으로 선출하게 만들고 그 임기에 한계를 두지 않는 《종신대통령제》를 내었다.

그야말로 박정희역도는 《유신헌법》으로 일거에 《총통》, 《전제군주》의 지위에 올랐던것이다.

역도의 잔인한 《유신》독재통치는 전례를 찾아볼수 없는것이였다.

《유신》독재체제하의 남조선은 그야말로 정치부재, 민주부재, 민권부재, 언론부재의 황량한 불모지로 변하였다. 당시 남조선사회를 휘흔들어

권》이 거꾸러지자 강력한 철폐령 통치로 남조선인민들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의 열망을 누르기 위해 이미전부터 껍적여놓았던 박정희 군사장패를 내세워 쿠데타를 일으킬 음모를 꾸미었다.

당시 남조선장검 미군사령관 매그루더는 박정희역도에게 자기 관할의 피퇴군무력을 서슴없이 대주어 쿠데타를 일으키게 하였고는 피퇴군참모총장패들이 쿠데타가 일어났다고 보고하자 미군은 일제 간섭하지 말라는 비밀지령을 하달하였다.

매그루더와 남조선주재 미국대사대리 그린은 《미군을 동원하여 반란군을 진압해달라.》는 피퇴대통령 윤보선의 요청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거절하였다.

뿐만아니라 쿠데타가 일어 난 즉시 미국부장관대리 볼스는 《신군사정부를 지지한다.》는 립장을 발표하였는가 하면 매그루더가 직접 쿠데타의 핵심인물인 김종필을 만나 성공을 축하해주는 놀음을 벌리었다.

미국대통령 케네디는 박정희군사 《정권》을 지지하는 《친서》까지 보내어왔다.

그때 미중앙정보국 장관이었던 덜레스는 후날 영국의 BBC방송에 출연하여 《내가 책임중 미 중앙정보국의 해외활동으로서 가장 성공을 거둔것은 5.16쿠데타였다.》고 고백하였다.

이처럼 5.16쿠데타는 그 무슨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라 미국의 각본에 따른 박정희역도의 백주에 써먹었던 장도영까지도 쿠데타반대음모를 꾸몄다는 죄를 들죄워 체포하였다.

역도의 뒤를 이어 군사장패들인 전두환, 로태우도 12.12속군 쿠데타를 감행하여 《정권》을 가로챘다.

실로 박정희역도의 5.16쿠데타는 남조선을 친미파쇼군사독재의 암흑천지로 더욱 전락시켜놓은 력사의 대미극이였다.

《10월유신》

놓은 통일혁명당재건사건, 민청학련사건, 울릉도간첩단사건, 남민전사건 등으로 수많은 민주인사들과 애국자들이 무참히 학살되었다.

박정희역도가 야당 당수 김대중을 일본의 도포에서 백주에 랍점하여 바다에 수장하려 하였던 김대중람치사건은 전세계를 경악케 하였다.

역도는 언론에 자갈을 물리고 사람들의 눈과 귀, 입을 막았으며 학원을 비롯한 사회단체를 군화발로 짓밟고 초보적인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 생존권마저 무참히 윤희하였다.

70만명에 달하는 피퇴군, 1만5000여명의 중앙정보부 요원, 40여만명의 정치특무, 5만여명의 피퇴경찰과 32만여명의 경찰정보원, 300만명의 향토예비군 등이 은 남조선땅을 옥압의 환무장으로 만들었다.

로동자들이 밀집된 도시에는 10명에 하나씩 정보원이 박히고 농촌에는 5개 농가가 서로 감시하고 런대책임을 지는 5초책임제가 도입되었으며 어민 5명당 1명은 밀정이고 학교에는 청년학생 사상연구회라는 비밀정보망이 생겨났다.

심지어 이웃집끼리 감시제, 부부, 부자간의 감시제라하는것까지 고안되었다.

무시로 발동되는 《비상계엄령》, 《위수령》, 《비상사태》, 《긴급조치》에 정치박학, 정치휴교령, 방첩월간과 방법주간, 불온자책출운동, 《유신》반역자박멸운동으로 남조선주민들은 어느 하루도 공포없이 산 날

이 없었다.

악명높은 《긴급조치》는 1974년부터 1975년까지 2년동안에만도 무려 9차레나 발동되었다.

《긴급조치》들에 의해 비상군법회의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무리로 처형되었다.

친구를 만나면 집선으로, 술을 나누면 모의한것으로, 악수를 하던 비밀약속으로 간주되어 재판도 없이 즉결집선되었으며 심지어 《배고파 못살겠다.》는 말 한마디에 《불온분자》라는 딱지가 붙어 중앙정보부의 지하고문실에 끌려가 매타아야 했고 《입산금지령》, 《통행금지령》때문에 벌초하러 산에 갈수도, 대낮에 이웃에 갈수도 없는가 하면 집에 도적이 들었다고 신고하여도 류언비어류포되에 걸려 옥고를 치르는 일까지 벌어졌다.

남조선에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말이 생겨났것도 이때부터이며 새가 어떻게 우느냐 하는 물음에 《떡》한다 해도 죽이고 《적》

영구분렬의 고착화와 《승공통일》광란

박정희역도는 집권기간 인민들의 조국통일운동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분렬과 대결에 미쳐날뛰었다.

역도는 5.16쿠데타로 《정권》을 가로채자마자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라는 구호밀에 높아가던 남조선인민들의 통일기운을 참혹하게 짓뭇개버리고 《반공》을 《제1국시》로 선포하였다. 그리고 《공산주의와 대결할수 있는 실력배양》을 떠들면서 미국상전을 찾아가 《미국의 리익을 희생시키면서까지 통일하지 않겠다.》고 맹약하였다.

역도는 1965년 6월에 발표한 담화문에서 《우리의 지상과제는 승공통일》이라고 꿰쳤다.

1970년대에 들어와 우리의 북남협상체와의 내외여론의 압력에 못이겨 북남대화에 마지못해 끌려나온 박정희역적패당은 조국통일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7.4공동성명에 도장을 찍고는 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지나친 락관은 금물》이라고 하면서 성명을 백지화하는 외세 나갔다.

또한 《유엔은 외세가 아니》라느니, 《미군주들은 길면 길수록 좋다.》느니 하면서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자주의 원칙을 부정해나섰으며 남조선인민들의 통일운동을 《반공법》과 《보안법》에 걸어 가혹하게 탄압하였다.

그리고 서해사건, 동해사건, 땅골사건 등 각종 모략사건들을 날조하고 《반공》궤기대회니, 성토대회니, 규란대회니 하는 땅대극들을 련이어 벌려놓으면서 반공화국대결광기를 부렸다.

박정희역도는 미제의 부추김질에 《두개 조선》조작책동에 미쳐날뛰었다.

역도는 1973년 6월 《특별성명》으로 나라의 영구분렬을 추구하는 《두개 조선》정책을 공공연히 선포하였다.

미국과 일본은 역도의 《두개 조선》정책을 즉시 지지하였다. 박정희역도는 《두개 조선》정책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책동에 발광적으로 매달렸다.

역도는 피퇴의무부 장관을 유엔에 보내어 《두개 조선》인정을 간청하게 하였으며 1973년에 있는 유엔총회 제28차회의에서는 미국에 매달려 《남북조선의 유엔동시가입에 관한 결의안》을 제출하고 지지표를 얻기 위해 온갖 비렬한 추태를 다 부렸다.

한다 해도 잡아죽인 중세의 폭군에 박정희역도를 비긴것도 이때부터이다.

《유신》독재의 야만적인 고문정치는 또 어떠하였는가.

중앙정보부의 비밀고문실에서는 물고문, 불고문, 전기고문, 마약고문, 배고문, 백열등고문, 비행기고문, 청기스한료리고문, 죽집고문 등 별의별 고문들이 다 가해졌다.

재일교포투학생들이었던 서승, 서준식형제가 박정희일당이 조작한 학원간첩단사건으로 체포되어 야수적인 고문을 당하고 형체도 알아볼수 없는 얼굴로 언론에 공개되었던 그 끔찍한 모습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박정희역도가 집권하여 18년간 한해에 70만~80만명, 연 1400여만명의 무고한 인민들이 체포투옥되고 학살당하였다.

《유신》파쇼독재는 남조선 전체를 감옥으로 만들고 폭압의 란무장으로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박정희 《유신》과 쏘독재의 실상이다.

영구분렬의 고착화와 《승공통일》광란

그것이 실패하자 미제와 박정희패당은 1975년에 있는 유엔총회 제30차회의때 남조선의 유엔 단독가입안을 들고나와 서상시켜 보려고 발악하였다.

박정희역도는 미국의 부추김질에 침략전쟁의 불길을 터뜨리기 위하여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적대적인 정탐행위와 무장도발을 약탈하게 감행하였다.

군사분계선일대에서 공화국에 대한 무장도발은 1968년에만 하여도 1만여건이나 있었고 정전협정위반행위는 1972년 7.4공동성명이 발표된후 1975년 9월 말까지의 기간에만도 무려 6만 8900여건에 달하였다.

박정희역도는 《승공통일》, 《멸공통일》을 부르짖으면서 피퇴군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고

남조선경제의 식민지에속화와 부정부패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패당은 《한강의 기적》이니, 《경제도대의 마련》이니 하면서 박정희의 《유신》독재를 찬미하고 있지만 실지는 그 정반대이다.

오늘 남조선경제가 안고있는 심각한 대외에속성과 재벌경제구조, 빈부격차는 어느것 할것없이 다 역도가 그 독초의 세앗을 뿌리고 자레워놓은것들이다.

박정희역도는 남조선경제를 외국자본에 첼저히 엮매인 식민지애속경제로, 질멸발이경제로 전락시켰다.

역도는 5.16쿠데타로 피퇴정권을 가로라고갔기 바쁘게 《산업근대화》니, 《경제개발》이니 하는 기간적인 간관을 들고 외국자본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었다.

역도는 《외자도입법》, 《외국인투자의 도입증진과 외국인투자기업의 육성시책》, 《수출자유지역법》, 《외국인투자기업체의 로동조합 및 로동쟁의에 관한 립시조치법》, 《공업소유권법》 등을 조작하여 외국독점자본에 온갖 특혜와 특전을 보장해 주고 외국기업에 고용된 로동자들이 로동조합을 못거나 로동쟁의를 벌리는것까지 법적으로 금지시켰다.

결과 특권을 부여받은 외국자본들은 남조선에 몰릴듯이 쓸어들어와 무제한한 락탈을 일삼았다.

박정희역도의 집권전기인 남조선에 들어온 외국차관은 225억 US\$, 외국인직접투자는 10억

향토예비군, 학도호국단, 민방위대 이어 부녀방위단, 부녀자위대 같은것까지 조작하여 온 남조선 땅을 군사병영으로 만들었다.

《병역법》을 뜯어고쳐 40살까지의 청장년들을 소경이나 큰 병신이 아니면 전부 피퇴군에 끌어낼수 있게 만들어놓은 역도는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 사건과 《EC-121》대형간첩비행기사건후 피퇴군사병들의 복무련환을 늘이고 후방에비사단들을 전투사단으로 개편하였다.

1970년에는 피퇴군정집을 전문적 야수적인 고문을 당하고 형체도 알아볼수 없는 얼굴로 언론에 공개되었던 그 끔찍한 모습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박정희역도는 1971년부터 《국군현대화 5개년계획》을 련이어 세우고 미국으로부터 수십억US\$의 군사원조를 끌어들이면서 대결과 전쟁책동에 광분하였다.

역도는 1977년부터 조국강토와 우리 민족을 영련히 물로 갈라놓을 흥게밀에 방대한 자금과 로력, 자재를 들이밀어 군사분계선 남측지역에 콩크리트장벽을 쌓았다.

이 거대한 장벽은 122개의 마을과 8개 군을 갈라놓았으며 산지와 평지는 물론 북과 남으로 통하는 3개 로선의 철길과 220여개의 크고작은 도로 그리고 강화천들까지 끊어놓았다.

콩크리트장벽을 쌓을 당시 현장에 나타난 박정희역도는 《이 북의 공산주의자들은 같이 살수 없다. 그들은 우리 민족이 아니다. 민족이 돌이 되든 셋이 되든 관계할바가 아니다. 장벽구축 공사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고하였다.

참고로 역도가 조국통일과 북남관계에 기친 막대한 후과는 이 루다 말할수 없다.

동서고금에 류례가 없는 콩크리트장벽은 오늘날 북남대결과 민족분렬의 상징으로, 박정희역도의 범피적만행을 온 세상에 고발해주는 산 증거물로 서있다.

남조선경제의 식민지에속화와 부정부패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패당은 《한강의 기적》이니, 《경제도대의 마련》이니 하면서 박정희의 《유신》독재를 찬미하고 있지만 실지는 그 정반대이다.

오늘 남조선경제가 안고있는 심각한 대외에속성과 재벌경제구조, 빈부격차는 어느것 할것없이 다 역도가 그 독초의 세앗을 뿌리고 자레워놓은것들이다.

박정희역도는 남조선경제를 외국자본에 첼저히 엮매인 식민지애속경제로, 질멸발이경제로 전락시켰다.

역도는 5.16쿠데타로 피퇴정권을 가로라고갔기 바쁘게 《산업근대화》니, 《경제개발》이니 하는 기간적인 간관을 들고 외국자본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었다.

역도는 《외자도입법》, 《외국인투자의 도입증진과 외국인투자기업의 육성시책》, 《수출자유지역법》, 《외국인투자기업체의 로동조합 및 로동쟁의에 관한 립시조치법》, 《공업소유권법》 등을 조작하여 외국독점자본에 온갖 특혜와 특전을 보장해 주고 외국기업에 고용된 로동자들이 로동조합을 못거나 로동쟁의를 벌리는것까지 법적으로 금지시켰다.

결과 특권을 부여받은 외국자본들은 남조선에 몰릴듯이 쓸어들어와 무제한한 락탈을 일삼았다.

박정희역도의 집권전기인 남조선에 들어온 외국차관은 225억 US\$, 외국인직접투자는 10억

속시켜놓았기때문이다.

특히 에네르기의 해외의존도는 1979년 말에 75%정도에 달하였다.

주요설비와 원료를 전적으로 해외에 의존하다나니 공업부문에서 완제품가공조립부문에 비해 생산수단 및 원자재생산부문이 심히 조작하여 남조선경제가 기형화, 질멸발이병신경제로 전락되었다.

극장지대로 이름났던 남조선이 필요한 량곡의 70%를 해외에서 사먹지 않으면 안되게 된것도 바로 박정희의 대외의존정책의 산물이다.

남조선농업인구는 1967년부터 1976년사이에 670만명이나 줄어 들었다.

남조선경제를 극소수재벌들이 관을 치는 재벌경제로 만들어놓은 원흉도 다름아닌 박정희역도이다.

역도는 재벌들로부터 막대한 정치자금을 받아먹는 대가로 집권전기인 친재벌정책을 실시하였다.

해방후 미국과 리승만피퇴정권이 적산불하정책으로 남조선내 판매벌들의 밀돈을 마련해주었다면 역도는 인민들과 중소기업들의 피땀을 끊어모아 재벌퍼주기 를 하여 재벌을 본격적으로 육성하였다.

박정희역도는 재벌들에 자금을 우선 대출해주는것을 제도화하고 환률조작으로 막대한 리윤을 가져다주었으며 재벌들이 해외에서 빚을 내어 기업을 확장하게 하고 은행들이 빚을 갚아주도록 재벌우대정책을 실시한 결과 1966—1975년기간 기업지원투자액중에서 98.2%가 재벌들에게 들어가고 겨우 1.8%만이 중소기업에 돌아갔다.

재벌들이 밀대해지면서 권력과 재벌들사이의 유착관계가 심화되고 온갖 부정부패가 성행하였다.

1963년 박정희역도가 재벌들로 하여금 밀가루와 사탕가루, 세멘트가격을 마음대로 올려 폭리를 보게 하고 수천만US\$를 정치자금이 받아먹는 3분공리사건, 재벌의 사카린밀수를 눈감아 주고 막대한 돈을 삼킨 사카린밀수사건, 미국산 잉어농산물을 끌어들이는 대가로 최소한 7900만 US\$를 걸어들인 부정부패사건 등은 그 일당이다.

피퇴권력과 재벌들은 서로 엉켜 진랑치듯 돌아갔지만 중소기업들은 항시적으로 심각한 자금난을 겪으면서 무리로 파산물락하였다.

박정희 《정권》시기에 빈부격차가 더욱 극심해졌다.

역도의 친재벌, 저임금정책으로 1970년대 중반 남조선인구의 0.3%에 불과한 재벌들과 반동관료배들이 국민소득의 약 60%를 차지하였다면 전체 인구의 70%에 해당되는 근로자들의 몫은 15%에 불과하였다.

로동자들은 하루평균 10시간이상씩 로동하면서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임금을 받으며 기아에 허덕이였다.

당시 남조선로동자들의 시간당 임금은 일본로동자의 8분의 1, 미국로동자의 11분의 1, 싱가포르, 인디아로동자의 2분의 1에 지나지 않았다.

참으로 《유신》독재자 박정희의 18년간 통치의 악몽은 몹서리 치는것이였다.

《유신》독재에 피영이 든 남조선인민들의 원한은 지금도 구천에 사무쳐있다.

《유신》독재의 부활은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주제101(2012)년 8월 9일 평양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전략적로선

지금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경제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아버지수령님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 축하연설에서 밝혀주신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위업승리의 진로를 따라 힘차게 나아가고있다.

일심단결과 불패의 군력에 새 세계 산업혁명을 더하면 그것은 곧 사회주의강성국가라고 하신 경제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강력적가르치심은 강성국가건설에서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적로선이다. 여기에는 사상중시, 총대중시, 과학기술중시를 강성국가건설의 3대기둥으로 내세우신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과 위업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우시려는 그이의 확고한 의지가 어려있다.

국력이 강하고 모든것이 흥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행복하게 사는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하려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념원이었다. 가장 혁명적인 사상, 무적의 총대에 최신과학기술이 결합되면 강성국가건설에서 거대한 변혁이 이루어지고 공화국은 불패의 강국으로, 후손만대 번영하는 참다운 인민의 낙원으로 된다.

일심단결은 강성국가건설의 천하지대본이며 필승의 보검이다. 주체의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위력의 위력으로 증명되는 불패의 강국이다. 나라와 민족의 밝은 전도

를 확고히 담보하는 국력중의 제일 국력은 일심단결이며 이것은 사회주의의 공고성과 불패성의 상징이다.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의 단결의 정신은 오랜 투쟁과정과 신념과 의지, 량심과 도덕으로 굳어지고 삶의 요구로 체질화, 생활화된것이다. 자기 명도자를 총직하게 받들어나가려는 투철한 수령경사용위정신은 군대와 인민의 사상정신적품오의 근본핵으로 되고있다. 세상에는 나라와 민족이 많지만 공화국에서처럼 명도자의 구상과 결심을 결사관철하는 그런 군대와 인민은 없다. 령도자와 팔을 끼고 어깨를 결고 힘차게 전진해나가는 일심의 대부대가 있기에 공화국은 가장 공고한 단결을 이룩한 존엄높고 위대한 일심단결의 나라로 천만년 무궁번영할것이다.

무적의 총대우에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강성번영이 있다. 공화국은 오랜 기간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반공화국책동속에서 사회주의의 길을 헤쳐오며 발전해왔다. 자주적인민으로 사느냐 아니면 또 다시 제국주의의 노예가 되느냐 하는 갈림길에서 공화국은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었다. 허적피를 더이면서도 국방력강화에 최대의 힘을 기울여왔기에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할수 있었고 이 땅우에 강성부흥의 활로를 열어놓을수 있었다. 자기를 지킬 총대

가 없었던 탓으로 사대와 망국을 속명처럼 감수해야만 했던 어제의날의 약소국이 그 어떤 원수도 범접 못하는 군사강국으로 세계에 우뚝 올라선것은 결코 세월이 가져다준 우연이 아니다.

오늘 공화국의 무장력은 강성국가건설을 총대로 굳건히 보위하는 불패의 군력으로 위용떨치고있다. 현대적인 공격수단과 방어수단, 강위력한 핵억제력을 갖춘 백두산강군을 제국주의자들이 감히 선불질을 하던 일격에 죽창처럼 버리고 고도의 격동상태를 유지하고있다. 공화국이 제국주의자들과의 대결전에서 련전련승하며 강성국가건설을 힘차게 벌려나가고있는것은 국력이 강하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님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에서 지축을 울리며 보무당당히 행진한 열병대오의 힘찬 발걸음과 무적의 철갑대오가 이에 대한 뚜렷한 실증으로 된다.

새 세계 산업혁명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경제강국건설을 다그쳐나가는 새 시대의 투쟁의 기치이다.

현시대에있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나라의 경제력을 평가하는 기본척도로 되고있다. 과학기술의 높이이자 국력의이며 경제강국이다. 정보산업시대,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새 세계 산업혁명을 힘있게 벌임으로써 오늘 공화국에서는 전반적경제가 새로운 전면적기술혁명의 단계에 들어

왔다. 새 세계 산업혁명은 눈앞의 시련이 아니라 멀리 앞을 내다보고 하나하나 세를 뿌리고 가우어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예견적로선의 정화이다. 기계공업의 CNC화를 종자로 틀어쥐시고 경제전반의 현대화, 지식화를 위한 사업을 추켜세우신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새 세계 산업혁명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었다.

오늘 최첨단 기계종합공장은 21세기 기계공업의 표본공장으로 자랑떨치고있다. 공장에서는 과학기술과 지식이 생산과 경영활동에서 주도적이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있다. 공화국의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기계제작공업에서 일어난 경이적인 사변은 최첨단과학기술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는데 경제강국건설의 지름길이었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일심단결과 불패의 군력에 새 세계 산업혁명을 더하면 사회주의강성국가라고 하신 경제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강력적가르치심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백승의 기치이다.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경제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밝혀주신 승리의 길을 따라 더욱 힘차게 내달려 이 땅우에 주체의 강성국가를 만드시 일떠세울것이다.

새롭게 변모되는 중앙동물원

평양의 대성산기술에 자리잡은 중앙동물원에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 무더운 날씨에도 이곳에는 사람들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그칠줄 모른다. 관람차를 타고 동물원을 돌아보는 사람들, 두벌의 말을 맨 마차를 타고 좋아라 웃고 떠드는 아이들... 그리고하면 수족관에서 크고작은 수조들에서 헤엄치는 민물고기와 바다물고기들, 야외동물사에서는 각종 희귀한 새들과 범, 코끼리, 사자, 기린들을 보면서 휴식의 한때를 보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수 있다.

평양의 중앙동물원은 5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있다. 처음에는 규모가 작았던 동물원이 오늘날 100여점의 드넓은 부지에 동물보호구형식의 자연동물원과 수족관, 코끼리사, 맹금사, 명금사, 수금사 등 판상용동물사, 동물물놀이장, 물새 및 물고기사육못, 여러가지 편의봉사시설과 오락시설 등, 동물재주장에다가 현대적인 수의병원까지 갖춘 나라의 훌륭한 재부로 전변되었다.

금메달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첫 금메달은 7월 29일 안금예선수가 여자유술 52kg급경기에서 우승하여 쟁취하였다. 같은 날 올림픽경기대회에 처음 참가하는 윤철선수가 남자자력기 56kg급경기에 출전하여 두번째 금메달을 땀다. 그의 추켜올리기 기록은 올림픽신기록이기도 하다.

세번째, 네번째 금메달은 남자자력기 62kg급경기에 출전한 김은국선수와 여자자력기 69kg급경기에 출전한 림정심 선수가 안아왔다. 김은국선



칠색송어가 바다로 간다

공화국의 양어업에서 또 하나의 비약이 일어났다. 몇해전 칠색송어 양어장에서 성공한데 이어 얼마전에는 칠색송어의 바다양어에서도 완전히 성공하였다. 물에 작은 비늘이 덮여있고 등과 배, 옆구리에 누른빛이 도는 푸른색, 은빛흰색, 푸른색과 같이 아름다운 띠무늬가 있어 일명 《무지개송어》라고도 불리우는 칠색송어는 2~3년정도면 엄지손가락 크기보다 작아도 맛이 좋고 영양이 풍부하여 세계 각지에 널리 퍼져있다. 칠색송어는 번식시키는 방법이 간단하고 성장도 빠르기때문에 인공적으로 기르는데 매우 유리하다. 최근에 세계적으로 칠색송어를 바다에서 기르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칠색송어를 바다에서 기르면 어럭모로 좋은 것이 많다. 바다는 칠색송어를 기를수 있는 생태학적조건들이 충분

히 갖추어져있으므로 칠색송어의 성장속도가 대단히 빠르다. 그리고 물원천의 제한을 받지 않기때문에 그물우리를 리용하여 마음먹은대로 칠색송어를 기를수 있다. 또한 민물에서처럼 물관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바다에는 동물성먹이보다 인공적으로 만든 먹이문제물 손쉽게 해결할수 있고 적은 원가로 물고기생산을 적극 늘일수 있다. 일찌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칠색송어를 대대적으로 길러 인민들에게 공급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었다. 인민들에게 더 많은 물고기를 먹이시려 마음먹으신 아버지수령님의 념원을 하루빨리 실현할 원대한 구상을 안오시고 경제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칠색송어 바다양어를 적극 장려하도록 하시고 그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었다. 현재위원들의 이민위원의 숭고한 뜻을 심장에 새겨안고 해당 분야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양어업에서 최첨단을 돌파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렸다. 이들은 동해의 양어기지에 나가 파라는 탐구의 낮과 밤을 보내면서 칠색송어를 적응시키는 데 앞장서는 양어방법을 과학적으로 찾아내었다. 그리하여 칠색송어를 바다물에 완전히 적응시키는데 성공하였다. 결과 맑은 샘물에서만 칠색송어를 기르던 전례를 깨고 바다양어를 대대적으로 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이 성과에 토대하여 양어

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동해에서뿐만아니라 조건이 불리한 서해에서도 칠색송어양어를 실현할 대담한 목표를 내세우고 이 사업에 달라붙었다. 무엇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조건말이 아니라 하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명언을 심장깊이 새겨안고 분발해나선 해당 부문 일군들과 동원바다양어사업소 근로자들은 창조적지혜를 합쳐 제기되는 과학기술문제들을 풀어나갔다. 그리하여 짧은 기간에 바다물의 수질상태와 깊이, 온도변화, 해류변동 등 양어조건이 불리한 속에서도 칠색송어를 서해에 적응시키었다. 이들은 이미 이러한 성과에 기초하여 대담하게 수만마리의 새끼칠색송어를 서해바다에 놓아 기르고있다. 동서해에서 바다양어를 한데 의하면 칠색송어바다양어는 경제적리해를 합쳐 대대적으로 키울수 있다. 칠색송어를 마리당 300g이상 되게 자라게 하는데 민물에서는 2년정도 걸리지만 민물에서 키운 100g짜리 칠색송어를 바다에서 300g이상으로 키우는데는 불과 3~4달밖에 걸리지 않았다. 현재 동원바다양어사업소에서는 100g짜리 칠색송어를 바다물에 적응시켜 키우고있다. 양어기간이 1년도 안되는 칠색송어 한마리의 무게는 1kg정도 된다. 칠색송어바다양어가 실현됨으로써 인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물고기를 공급할수 있는 전망이 열리게 되었다. 본사기자 박원평

《축하합니다》

의 이목을 끌기도 하였다. 이 장면들을 보고있느라니 언제인가 남조선잡지에 실렸던 기사의 한 대목이 떠올랐다. 《북과 미국이 경기를 하더라도 보수는 진보이든 저도 모르게 북을 응원하게 되는것은 무엇때문인가.》...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한것이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사상

한 공화국선수들에게 《축하합니다.》라고 인사를 보내고 이에 선수들이 감사를 표하는 감동적인 장면도 펼쳐졌다. 그런가하면 관람석에 앉았으면 남측의 응원단들이 북측선수들의 경기를 열광적으로 응원하여 여론

리제를 찾아볼수 없는 극우보수세력의 《종북세력척결》소동이 악랄하게 벌어지고있다. 공화국의 현실을 알려고 했다고 《종북》, 공화국의 실상을 이야기했다고 《종북》... 그야말로 현대판 마녀사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신》파소속채시기를 림정심에서 이살벌한 대결광란속에서 공화국을 방문하고 자기가 보고 들은것을 말했다고 통일애국인사가 짐승처럼 몰이여 철창속으로 끌려가고 세인이 찬란해지지 않는 길일성주석의 회고록을 읽도록 권유한 사람이 《보안법》위반으로 감옥

에 갇히는판이다. 이번에 남조선의 올림픽취재진에 공화국선수들의 경기성과를 축하하고 응원자들이 북의 선수들을 응원해나선것은 자칫하면 《보안법》상의 실상을 이야기했다고 《종북》... 이것은 결국 피를 속일수 없다고 사상과 리념보다 민족이 우위에 있다는것을 말해주는것이다.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이 아무리 《종북》이요 뭐요 하면서 대결의 칼바람을 몰아와도 남조선인민들의 마음속에 간직된 민족애, 연북화해의 지향은 없앨수 없는 것이다. 최명제

내가 본 북과 남

도 하지 않는 가장 비천하고 어려운 일뿐이다. 그나마 사람들의 행태와 따돌림속에 돈벌기는 고사하고 얼마 못가 망하고만다. 내가 아는 한 《탈북자》 녀성은 매대를 차려놓았는데 사람들이 《탈북자》라고 꺼리며 낯도 돌리지 않아 끝내 문을 닫고말았다. 돈을 벌지 못하게 되자 사체업자가 한들 들고와 죽이겠다고 협박하던 끝에 녀성을 유흥업소에 팔아버렸다. 하여 그 녀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장그려 유린당한채 돈많은 자들의 성노리개로 전락되고말았다. 한 《탈북자》녀성은 남조선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두 아들과 함께 해외로 나갔다가 말아들을 불치의 병으로 잃고 둘째아들만 데리고 돌아왔는데 하루는 불

람배들이 《탈북자》 자식이라고 한들대면서 그의 아들을 한층층이 강압적으로 밀어넣어 질질시켜 죽였다. 그 녀성이 2년나만 법원에 찾아다니며 억울한 사정을 고소했으나 차체진정은 조소와 랑대뿐이었다. 나와 함께 《하나님》을 나온 김복순이라는 할머니도 생계유지를 위해 피땀흘려 모은 얼마 안되는 돈마저 협잡꾼에게 떼우거나 자살할까에 빠져 더이상 살고 싶지 않다며 아바트에서 떨어져 목숨을 끊었다. 극심한 생활난과 그림자처럼 뒤따르는 랑대와 멸시, 정신적불안과 만성적인 괴로움 등으로 병마에 시달리고 돈이 없어 범죄의 길에 빠져들거나 자살하는 《탈북자》들이 그 얼마인지 모른다. 하루가 멀다하게 들려

